

한인뉴스

Korean News(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haninnews123@gmail.com

노인들을 위한
공간을 꿈꾼다



2010·4

통권 166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홈페이지(www.innekorean.or.id)에서
한인뉴스 과월호를 다운로드 받아서 책자 모양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MESSAGING NOW COMES TO LIFE

한글 메뉴 및
SMS



LG GW300

www.lgmobile.com



LG

Life's Good



- QWERTY Keypad • Live Square™
- SMS Chatting • 2.4" Wide Screen

JOIN THE TOUCH GENERATION

한글 메뉴 및
SMS

ARENA



KM900

- S-Class UI • 5MP Camera
- Wi-Fi • Dolby Mobile Sound

한글 메뉴 및
SMS

Renoir



KC910

- 5MP Camera • 3.5G/HSDPA
- 120 fps Video Recording

한글 메뉴 및
SMS

Cookie



KP500

- 3" Full Touch Screen
- Active Flash UI • Accelerometer

CIC
LG CUSTOMER INFORMATION CENTER
Layanan 365 hari
Jakarta : (021) 721-99777
Surabaya : (031) 549-0777

0-800-123-7777
(Bebas Pulsa)

LG MOBILE SHOWROOM & SERVICE CENTER

Jakarta : • ITC Roxy Mas, Tel. (021) 63866287 • Mall Taman Angrek, Tel. (021) 5639082 • ITC Cempaka Mas, Tel. (021) 42901978-79 • Mall Senayan City, Tel. (021) 72781540 • Mall Ambassador, Tel. (021) 57939654
57933590 • Pacific Place Mall, Tel. (021) 57973044-55 • ITC Farmawan, Tel. (021) 91260046 • Grand Indonesia, Tel. (021) 23580652 • Mall Kelapa Gading 3, Tel. (021) 4507970
Tangerang: Supernal Karawaci, Tel. (021) 5473437
Bogor: Borani Square, Tel. (0251) 8400674

LG MOBILE MASTER DEALERS

Jakarta : • Felixindo • Indokom • Dunia Phone • Star Cell

LG MOBILE PARTNERS

Jakarta : • Andrew Cell, Tel. (021) 63858857 • SMS Shop, Tel. (021) 63858751 • Pancatama, Tel. (021) 63858780 • H2, Tel. (021) 6304815 • Felixindo, Tel. (021) 42880810 • Sacho Cell, Tel. (021) 5762528 • SG Cell, Tel. (021) 68566626 • Mlenia, Tel. (021) 66601515, (021) 66603128 • Dunia Phone, Tel. (021) 63860678
Cibinong : Central Communication, Tel. (021) 87920335
Bekasi : Dewata, Tel. (021) 89855178
Bogor : Centralindo, Tel. (0251) 8345456 • Taguh Cellular, Tel. (0251) 8322153

LG MOBILE ORIGINAL ACCESSORIES

Original Room, Tel. (021) 30010333, (021) 9852221, www.originalroom.com

180° 평면의 안락함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해 드리는 퍼스트 클래스의
Kosmo Sleeper Seat, 이코노미 클래스의 모든 좌석에서도 즐기실 수 있는
주문형 오디오·비디오 시스템, 머큐리 어워드(Mercury Award)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품격 기내식과 웨지우드(Wedgewood)에서 제작한 우아한 식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로 대한항공이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From departure to arrival, Excellence in Satisfaction

교민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하나은행!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교민 여러분을 모십니다.

하나, 이젠 대출도 하나은행과 의논하세요!

- 기업운전자금 / 시설자금 대출 (루피아, USD)
- 수출입, 무역금융 서비스
- 공장 /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
- 매출채권 담보 팩토링 대출

둘, 기분 좋은 개인고객 서비스

- 17개의 넓은 지점망과 고금리 루피아 예금
- 최저 수수료의 외화 송금 서비스 (한국 하나은행으로 송금시 해외수수료 20불 면제)

3월 1일 수라바야 지점 개점!

상담 전화: 021)522-0222

홈페이지: www.hanabank.co.id

Gedung Mitra, Jl. Gatot Subroto Kav 21



Hana Bank

HYUNDAI TRUCK & BUS



KotyBus
KORINDO MOTORS

Berjelajah Seru Bersama Koty !



**HD MIGHTY
TRUCK**

125PS
TURBO - CHARGED INTERCOOLER
EURO II

 **KORINDO MOTORS**

CONTACT : (021) 596-0445

국민을 위한 Garuda Orient Holidays 패키지 모음

GOH와 한국 가기

여행테마	건강검진하고 예쁜 곳 찾아 다니기	건강검진하고 남도 일주	건강검진하고 제주도 옛길 따라 걷기	올레-올레, 제주 올레 갈래-갈래, 제주 갈래
가격	10인 US\$1,480 05인 US\$1,510 02인 US\$1,630	10인 US\$1,655 05인 US\$1,666 02인 US\$1,700	10인 US\$1,666 05인 US\$1,699 02인 US\$1,833	10인 US\$990 05인 US\$1000 02인 US\$1,100
상품내용	- 가루다 왕복항공권 - 명품종합검진 - 민속촌*에버랜드 - 남이섬*삿대프랑스 -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 강화도*인천대교	- 가루다 왕복항공권 - 명품 종합검진 - 통영 한려수도 - 거제도*소매물도 - 진주성*마이산 -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 강화도*인천대교	- 가루다 왕복항공권 - 제주 왕복항공권 - 명품 종합검진 - 제주도 2박3일 -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 강화도*인천대교	- 가루다 왕복항공권 - 제주 왕복항공권 - 제주도 3박4일 -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 강화도*인천대교
포함사항	자카르타-인천간 10일 유효 왕복티켓, 서울 외곽 특급호텔 2인1실 숙박, 교통편, 여행길잡이, 여행편의품			
불포함 사항	자카르타 공항세, 항공세, 서울체류 숙박			

GOH와 인도네시아 가기 1, "가루다 항공 자카르타 AIRTEL"

	호텔	객실종류	요금(원)	
			2인1실	1인1실
★★★	IBIS Slipi IBIS Mangga Dua	Standard Superior	499,000	549,000
★★★★	Mercure Convention Centre Aston Marina	Superior 1BedRoom	529,000	599,000
	Crowne Plaza Gran Melia	Deluxe Deluxe	559,000	739,000
★★★★★	Mulia Senayan Four Seasons	Superior Splendor	599,000	779,000
★★★★★	Mandarin Oriental Jakarta	Superior	669,000	889,000
포함사항	인천-자카르타 왕복 항공권, 자카르타 GOH 호텔 2박 숙박			

GOH와 인도네시아 가기 2, "인도네시아 국민 가족초청 발리 AIRTEL"

지역	호텔	요금(원)		
		평일 출발	일*월요일 출발	
짐바란	★★★ ★★★★★	Best Western New Kuta Condotel Intercontinental Bali Resort	619,000 779,000	819,000 989,000
	★★★★★	Sanur Beach Hotel	659,000	869,000
꾸따	★★★ ★★★★★	Bali Kuta Resort & Convention Center Holiday Inn Resort Baruna Bali	649,000 739,000	849,000 949,000
	★★★★★ ★★★★★ ★★★★★ ★★★★★	Aston Bali Resort & Spa Melia Bali Villas & Spa Resort Nikko Bali Resort & Spa The Westin Resort	669,000 709,000 769,000 759,000	879,000 919,000 979,000 969,000
우붓	★★★★★ ★★★★★	Beji Ubud Alila Ubud	699,000 819,000	909,000 1,020,000
	★★★★★	Le Meridien Nirwana	719,000	929,000
스미낙	★★★★★	Sofitel Seminyak	739,000	949,000
포함사항	인천-자카르타-발리-인천 간 항공권, 발리 GOH 호텔 2박3일 숙박 및 발리공항-호텔간 차량			

GOH와 여행하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국제선*국내선 항공권 발권, 인도네시아 국내여행 및 호텔예약도 도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가장 편안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및 예약

다르마왕사 스퀘어 3층 55호

전화 : (021) 7278-0856/0859

이메일 : oh_kumju@primef.co.id / michelle.lee@primef.co.id



MY(**희망을 주는**)PARTNER

새벽을 함께 여는, 기쁨을 주는, 산타클로스 같은, 꿈을 키우는,
멋진, 전문적인, 믿음직한, 말이 통하는,
친구 같은 파트너가 되어 드렸던 외환은행
이제, 모두의 희망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KEB  **인도네시아한국외환은행**

본점 : TEL 021) 574-1030, Jakarta Sudirman에 위치한 GKBI 빌딩 20층(BRI II 빌딩 옆)
찌카랑출장소 : TEL 021) 897-3340, Lippo Cikarang에 위치한 Lippo 빌딩 2층(SILOAM 병원 옆)
플라빠가딩출장소 : TEL 021) 4585-6388, Graha Rekso 빌딩 Ground floor



땅그랑한인회 창립기념 교민의 밤

날짜 : 2010년 4월 16일 금요일 저녁 6시
 장소 : 임페리얼 골프장
 주최 : 땅그랑 한인회
 후원 :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공연 : 초청가수 노고지리, 땅그랑 사물놀이패 한가람

일반회원 연회비: Rp 100,000
 입장권 : Rp 100,000
 식사(뷔페), 음료 및 주류 제공

티켓판매:
 강나루, 명가, 땅그랑 한인회 사무실(무궁화 슈퍼 2층)

연락처: 땅그랑 한인회 사무실
 Tel: 021-5532-5555 Fax: 5532-6666
 이태복(수석총무) HP : 0811-969-1190,
 서중균(총무) HP : 0811-805-212

인도네시아 한인회보

한인뉴스

창간 1996년 7월 15일

발행처: 인도네시아 한인회

발행인: 승은호

편집인: 조규철

논설위원: 김문환

편집위원: 김재민, 김은미, 최양기, 정무송, 김영민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123@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웹사이트에서 과월호 한인뉴스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2





24

10 한인사회 소식

- '한인뉴스 논설위원' 에 시사포커스의 김문환 씨 위촉
- 산업인력관리공단, 구인·구직 지원 받 벗고 나섰다.
- 박노웅 명창, 판소리 공연 성황
- 디지털 염색공정 및 자동화 세미나
- 눈높이 인도네시아, 한인회에 도서 기증
- 인니 밀폐용기 최대 유통업체로 성장한 '조은스타'
- KOICA, 해안지역 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해
- 인도네시아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노력에 동참
- 이민재, 조종수 행장 귀임
- KOICA, 인니 과학원에 에너지, 환경, 천연물질연구소 건립 지원
- KOICA 이종선 소장 귀임, 최성호 소장 부임
- 제2회 한인회 인도네시아문화연구회 열린 강좌 열려
- 한국-인도네시아 문화 가교 '인도네시아문화연구회'



28

22 건강칼럼 신선함이 듬뿍 Terong Belanda

24 커버스토리 노인대학 - 노인들을 위한 공간을 꿈꾼다

28 시사포커스 21 테러정국

32 김신의 알고싶은 컴퓨터 이야기 인터넷과 네트워크

35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소식

36 KOWIN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인니지회 프로그램 안내

38 밀알한글학교

40 자카르타 학력 경시대회 시행 요강

41 김은미 편집위원의 추천 도서 세 잔의 차

42 평통광장

45 행복한아이의비밀5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

49 유춘강의공정칼럼 피고 지는, 화우시절 花雨時節

50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뽀뿌아섬 이야기

54 KOGA 2010년판 주소록 책자 개정편찬 안내

55 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58 in JAKARTA 쇼핑의 중심 몰, 이제 예술로 즐긴다.

60 인도네시아 문화탐장 나를 키워준 아! 반둥

62 와칭코리아 개탄스런 북한의 인권 상황

64 교민여론광장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65 인도네시아 법률 해설 토지(부동산)법

68 BOOKS

70 MOVIES

71 생활정보 가이드

76 4월 공지사항



38



58



‘한인뉴스 논설위원’ 에 시사포커스의 김문환 씨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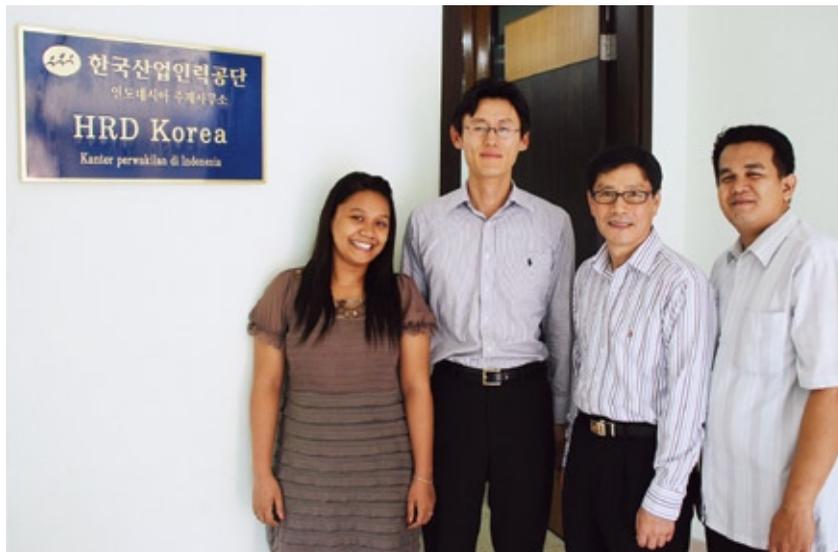
한인뉴스후원회(회장 조운행) 정기모임이 지난 3월 25일 자카르타의 한 식당에서 있었습니다. 2008년 4월 자발적으로 결성된 한인뉴스후원회의 이번 정기 모임에는 재인니한인회 회장 겸 한인뉴스 발행인인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이 참석해 후원회에 대한 각별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매번 정기모임을 통해 한인뉴스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언과 아낌없는 도움으로 한인뉴스 발행에 큰 도움이 되어왔던 후원회는 한인뉴스편집부와 함께 금번 모임에서 ‘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및 지금도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으며 연재되고 있는 ‘시사포커스’ 등 2004년 부터 한인뉴스에 깊은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칼럼리스트 김문환씨에게 한인뉴스 논설위원직 요청했고, 김문환씨는 흔쾌히 수락해 한인뉴스가 앞으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를 바로 비추는 정론지로서의 체계를 갖추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 부터 인도네시아 현대사와 한인사회에 대한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고 꾸준히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김문환 논설위원은 ‘점점 커지며 다양해지고 있는 한인사회의 바른 미래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 논설위원직 수락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 1 최양기 한인뉴스 편집위원, 2 조규철 편집인, 3 승은호 발행인,
- 4 조운행 한인뉴스후원회장, 5 김문환 논설위원, 6 조영선 후원회원,
- 7 주창후 후원회원, 8 정무송 편집위원, 9 신성철 후원회원,
- 10 이근성 후원회원, 11 김 강 후원회원, 12 송창환 후원회원, 13 김재민 편집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카르타 지사는 코리아센터에 내에 위치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가 진해강 산업관리공단 인니 지소장, 그 옆이 주인니한국대사관의 하형소 노무관

산업인력관리공단, 구인·구직 지원 발 벗고 나섰다.

봉제 및 신발업종을 중심으로 한국인 직원에 대한 구인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우수한 인력을 직접 소개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

한국인 직원 채용을 희망하는 교민 기업들은 산업인력관리공단 인도네시아 지사(지사장 진해강)에 연락하면 인력소개 및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취업전문 사이트인 월드잡 사이트(www.worldjob.or.kr)에 가입해 인니 취직을 희망하는 한국인 구직자들을 직접 검색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검색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 정보만 공개되고 있어 인력공단에 연락하면 공단측이 사측과 취업희망자를 직접 연결해 준다.

최근 중국, 베트남 봉제 및 신발업종 한국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이전 사례의 증가와 인니 교민 기업들의 사업 확장 및 포스코 일관제철소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직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해강 지사장은 “한국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사업 촉진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인기업이 많고 한국인 직원수요가 높아 정부가 직접 채용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진 지사장은 “구인애로 해결을 위한 한국 본부와의 긴밀한 협의뿐만 아니라 한국인 고용시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현재 교민봉제업체는 생산 현장 경험이 많은 경력직 공장장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이공계졸업 생산현장 관리자와 디자이너에 대한 신입사원 수요가 많은 편이며, 신발업종은 신발관련 학과를 졸업한 생산현장 관리자를 선호하고 회계, 무역, 바이어 및 정부기관 상대 업무를 담당할 청년 구직자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지사

지사장 진해강

전화: 021-527-2612, 핸드폰: 0815-8508-0280



박노웅 명창, 판소리 공연 성황 자카르타 및 지방까지 ‘판소리’의 진수 선보여

인니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이하 예총, 회장 손인식) 주최로 열리는 명창 박노웅 선생과 고수 임민수 선생 초청 판소리 자선공연이 지난 3월 9일 200여 명의 교민들이 자리한 자카르타 성요셉 성당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8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대사관, 한인회, 월드옥타, KMK, 부인회, KOWIN 등 많은 교민단체의 후원으로 진행된 금번 판소리 공연은 PT.SerimIndonesia(3월 10일), 반둥 BIS(11일), 족자(13일), 자카르타 연합교회(15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17일) 에서 교민들과 교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손인식 예총 회장은 “한국 전통음악인 판소리와 민요, 전통 악기를 통해 교민들에게 우리 음악의 정수를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한인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해 공연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첫날 공연에서 본격적인 판소리를 하기 전 목을 풀 목적으로 무대에 오른 박노웅 선생은 단가로서 ‘사철가’를 풀어냈다.

박노웅 명창은 이어 본격적으로 춘향가 중 판소리의 진수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사랑가’ ‘이별가’ ‘쑥대모리’의 판을 열며 교민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교민들은 ‘잘한다’ ‘얼씨구’ ‘그렇지~’ 등의 추임을 내며 명창과 호흡을 같이 했다.



곧 이어 박노웅 명창은 ‘심청가’ 중 소리꾼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대목인 ‘상여타령’을 슬픔 가득히 뽑어냈고 고수 임민수 선생과 함께 흥겨운 남도 민요인 ‘성주풀이’를 선보였다.

손인식 회장은 ‘판소리는 구전으로 전해지고 몸과 맘으로 받아들이는 깨우침의 경지를 요구하는 예술이다’ ‘우리 민족을 한이 많은 민족이라 말하지만 한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고 흥으로 풀어내는 슬기로운 민족이다’는 등 판소리 마당 사이 판소리에 대한 내용을 짚막이 요약해 설명해 교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본 무대가 끝나고 교민들의 요청으로 ‘육자배기’ ‘한타령’ ‘진도아리랑’ 등까지 판소리의 정수를 맘껏 뽑내게 된 박노웅 명창은 “외국에서 열광적인 성원

속에서 소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금번 판소리 공연에 교민 예술인 들도 출연하는 등 교민 문화의 질을 다시한번 확인 한 순간이기도 했다. 성요셉 성당과 자카르타 연합교회에는 섬세하고 변화가 풍부한 가아가 특징인 교민 가야금 연주자인 조은경(장구반주 이덕기) 씨가 ‘중모리’ ‘중중모리’의 가야금 연주로 녹녹하지 않은 실력을 뽐냈으며, 땅그랑 사물놀이단은 PT.세림 인도네시아에서 흥겨운 풍물을 선사했다.

한편 손인식 예총 회장은 공연을 통해 기금된 총액 63,468,000 루피아와 400 달러가 모금되었다며 차후 기금 사용내역에 대해 명확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후원(기금) 내용

후원처	후원 내용(기금)
PT,KMK 송창근회장	Rp.5,000,000
PT,Pratama 서영울회장	Rp.5,000,000
동서증권 최대호사장	Rp.5,000,000
월드옥타 김우재회장	Rp.5,000,000
한국국제학교	Rp.3,000,000
재 인니평화통일자문회의 김광현회장	Rp.2,000,000
한국부인회 홍미숙회장	Rp.1,000,000
안선근 교수	Rp.1,000,000
성요셉성당 공연	Rp.6,674,000
PT. 세림 인도네시아 공연	Rp.9,200,000
반동 한인회 공연	Rp.6,807,000
족자 한인회 공연	Rp.6,050,000 \$ 200
연합교회 공연	Rp.1,580,000
한국국제학교 공연	Rp.157,000
어린이합창단	Rp.2,000,000
루시플라워회	\$ 200
색소폰동호회	Rp.1,000,000

후원처	후원 내용(기금)
월화차회	Rp.1,000,000
한바패	Rp.1,000,000
서예협회	Rp.1,000,000
K-TV, KBS World	방송 광고
한인뉴스, 일요신문, 한나프레스	지면 광고
강희중, 제경중 님	행사 차량 제공
재 인니 한인회	격려 만찬
주 인니 한국대사관	격려 만찬
장근원 님	족자 공연시 무대, 오디오 시설 및 공연참석자 전원 식사 제공
총계	Rp.63,468,000 \$ 400



디지털 염색공정 및 자동화 세미나

한국-인도네시아 산업기술협력센터 (KITC : Korea-Indonesia Industry and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에서는 2010년 3월 5일 섬유도시 반둥의 그랜 아퀼라 호텔에서 한국업체 및 인도네시아 섬유관련 정부, 연구소, 대학, 업체 등이 모인 가운데 디지털 염색공정 및 자동화 시스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금번 세미나는 한국 지식경제부 후원하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 나경환) 섬유기술본부에서 연구개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염색 Pilot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 5년간 개발한 우수한 디지털 염색공정 및 자동화 시스템 기술을 진출 한국 섬유기업과 섬유관련 인도네시아 정부, 산, 학, 연 등에게 소개, 홍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KITC 에서 주관하고, 인도네시아 섬유연구소가 조직위원회가 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도네시아 산업부, 섬유협회, 섬유대학 등에서 후원함으로써 이루어 졌는데, 한국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섬유본부에서 남창우 박사, 차희철 박사, 심재운 박사 등이 참석하였고, 섬유자동화장비 전문업체인 포원시스템에서도 함께하였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차희철 박사에 의하면 이날 인도네시아 반둥 세미나를 시발로 향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의 국가에서도 동기술에 대한 해외 로드쇼를 연속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축사를 맡았던 인도네시아 섬유연구소 수세노 우또모 소장은 인도네시아 제조업 일등공신인 섬유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이룩한 협력활동 및 성과, 향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간 섬유산업 협력증진방안 등을 언급하였다.

염색공정 혁신 기술개발의 주역으로 이날 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남창우 박사는 지난 5년간 개발해 온 디지털 염색공정 및 자동화 기술개발에 대하여 자세하고 쉽게 소개,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 냈다. 특히, 고가의 이태리 염색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하여 관심이 높았다. 남창우 박사는 인도네시아측의 열띤 호응에 놀라움을 전하면서 향후 진출 한국기업 및 현지기업 등을 대상으로 염색공정 및 자동화 기술 등 관련 기술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피력하였다.

질의응답시간에는 섬유제품의 최종 부가가치 제고에 필수적인 최첨단 염색기술 및 자동화 시스템 구현방안, 관련 장비사양 및 작동, 이태리 장비 대비 가격 및

눈높이 인도네시아, 한인회에 도서 기증

눈높이 인도네시아(사장 노재익)가 지난 3월 18일 한인회에 양서 및 학습서 200권을 기증했다.

눈높이 인도네시아 노재익 사장은 외국이라는 조건 때문에 책을 구하거나 읽기가 쉽지 않아 아쉽지만 한인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에서 도서관을 갖추고 책읽는 풍토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 좋아 기증하게 됐다며 교민 모두가 책을 가까이 하고 행복해 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대교 인도네시아 주석찬 대표와 이승만 신임대표도 참석했다. 대교 인도네시아는 한인회 문화회관 설립시 500여권의 양서를 기증한다 있다.



왼쪽 부터, 김재민 한인회 사무국장, 주석찬 대교인도네시아 소장, 이승만 신임 소장, 노재익 눈높이 인도네시아 사장

품질성능, 생산성 기여도 등 에 대하여 참석자들 간에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감 넘치는 시간을 갖았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산업부 무함마드 연구개발총국장은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의 향후 재도약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양국 섬유업체간 보다 활발한 협력과 거래를 희망하였다. 특히, 연구현장의 전문가들과 더불어 섬유자동화장비 전문 한국업체가 함께 방문해 줌으로써 기술개발 목소리와 업계현장의 소리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금번 행사를 주관한 KITC 김평순 소장은 세미나를 위하여 한국에서 방문한 전문가들과 관련 업체, 그리고 성공적인 행사추진에 많은 도움을 준 인도네시아 산업부 및 섬유연구소 등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최근 섬유산업 국제동향을 볼 때 사업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중국 및 베트남 등지로부터 인도네시아로의 러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번 세미나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섬유기업간 비즈니스 연계 및 거래창출,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의 재부흥에 일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문의처 : KITC / 김평순 소장
02-526-6801 / psoon@kitech.re.kr



부인회 <노래 한마당> 본선

일시

- 예선 : 4월 19일(월) 10:00
- 본선 : 4월 26일(월) 10:00 (부인회 총회시)

장소 리츠 칼튼 호텔

참가부문 독창, 중창 등, 선곡 자유

참가자격 인도네시아에 살고 계신 모든 한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배우자

문의 0815 1149 1004, 0815 181 3793

푸짐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인도네시아한국부인회 회장 홍 미 숙



인니 밀폐용기 최대 유통업체로 성장한 ‘조은스타’

- 제2의 도약 꿈꾸며 물류창고와 사무실 새롭게 단장

2001년 세계 유명 한국 밀폐용기 제품인 Lock & Lock 등 밀폐용기 취급 유통업체를 설립한 후 현재 인니 최대 밀폐용기 유통업체로 성장한 PT. 조은스타 (PT. Joeun Star International, 사장 유주완)가 지난 3월 8일 땅그랑 스트롱(Serpong)지역에 물류창고와 사무실을 새롭게 확장 이전하고 종합 생활용품 전문회사로의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2,500 평방미터 대지에 3층 높이로 신축된 조은스타는 2곳의 물류창고 및 사무실, 쇼룸, 워크샵룸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약 3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중견 기업이다.

조은스타는 설립 10년 만에 반둥, 수라바야, 메단, 머나도 등에 지사를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전국의 대형 할인 매장 및 고급매장인 Carrefour, Metro, Foodmart, Ranci Market 등 200여 곳과 Mega 은행, NISP 은행, Niaga

은행 및 암웨이, Sophie Martin, 삼성, Sharp 등 굴지의 현지 업체 등에도 특판 형식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등 현재 현지 밀폐용기 유통분야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올해 전국의 입점 매장을 100여 곳 더 확장하기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유주완 사장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룬 회사 성장의 주 원동력을 한결같이 함께 해준 사원들의 노고로 돌렸다.



KOICA, 해안지역 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해 인도네시아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노력에 동참

우리 정부의 대외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청(BAPPENAS)과 향후 2년동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안보호 및 관리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합의하고 3.24(수)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에 서명했다.

345만불 규모(KOICA 300만불, 인니측 45만불)로 추진되는 동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해안지대의 명확한 정보 관리를 통해 해안인근지역 주민의 안전 및 해안지대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OICA는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현재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해안지역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총괄적인 중장기 해안보호 및 관리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해안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수집된 자료에 기초하여 가장 보호대책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해안보호 및 관리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17,0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로 세계에서 2번째로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도인 자카르타의 경우 해안에서 가까운 북쪽에 주요 인프라가 자리잡고 있어 매년 우기만 되면 홍수로 인한 피해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 및 구체적인 해안보호 정책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오며 따라 BAPPENAS가 지난해 9월 한국 정부에 동 사업을 무상원조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KOICA와 BAPPENAS는 동 사업이 인도네시아 해안보호 관리의 중장기적 개발 전략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양국간 정보교류(knowledge sharing)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양국의 우수한 전문인력 풀을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사원들 모두가 나의 친구이며 스승이었다. 앞으로도 서로 돕고 행복하게 회사를 이끌어 갔으면 한다”고 전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는 이날 두 명의 최우수 사원을 선정, 오토바이 2대를 선물로 내 놓는

등 각별한 사원 사랑을 보였다.

또한 그는 보다 전문적인 종합 생활용품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feel buy’라는 고유상표로 인니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전하고 지난해 끝라빠 가딩 지역의 feel buy shop 1호 점 오픈 이후 지속적인 매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PT. Joeun Star International

Jl.Ciater Raya Kp.Maruga Rt.03Rw.08 Kelurahan Ciater, Serpong Tangerang Selatan

대표전화: 021-5794-9010



행장의 귀임 송별식. 한인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승은호 한인회장이 조종수 외환은행장 (왼쪽에서 네번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민재 행장의 귀임 송별식. 한인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유 수석 부회장이 이민재 우리은행장(왼쪽에서 여섯번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신임우리은행장인 김경희 행장.

이민재, 조종수 행장 귀임

우리은행 이민재 행장과 외환은행 조종수 행장이 이 지난 3,4년의 인도네시아 직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임했다.

재인니한인회 회장단은 지난 3월 송별식을 열고 이민재 행장과 조종수 행장의 인니 재임 중 재인니한인회 부회장 및 상공회의소 임원으로서 헌신적인 봉사로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인도네시아 양국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과 교류에 많은 공헌 한 데에 고마움을 전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민재 행장은 한 한인 TV 매체에서 매주 3회에 걸쳐 인도네시아 경제 동향에 관한 자세한 소식을 전하는 등 인니 한인사회에 특별한 애착을 보였다.

특히 이 행장은 귀임을 몇 달 앞두고 자카르타 근교 땅그랑 지역의 찌뜨라라야에 거주하는 일부 다문화가정 한인 2세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한 공부방을 개설하는데 힘을 쏟았다. 그는 ‘우리장학회’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하며 한인회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단체가 앞장서서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바른 일꾼으로 성장해 한-인니 양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종수 행장은 한인사회 각종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외환은행 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현지 한국학과 학생 등을 후원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임을 다했다.

조종수 행장은 ‘인도네시아의 생활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이라며 두터운 친분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 교민 기업인들에게 많은 감사를 전했다.

한편 송별식이 있던 날 우리은행에 새롭게 부임한 김경희 신임우리은행장과의 상견례 자리도 마련되었다. 김경희 신임은행장은 “전임 행장이 너무 많은 일을 해 놔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교민 기업들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밝혔다.



KOICA, 인니 과학원에 에너지, 환경, 천연물질연구소 건립 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3월 19일, 인도네시아 과학원(LPI)에서 에너지, 환경 및 천연물질 연구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300만불을 무상지원키로 하고, 최성호 KOICA인니사무소장 및 Prof. DR. Umar Aggara Jenie LPI원장이 양국가를 대표하여 서명하였다.

동 사업은 세르봉에 위치한 LPI 화학연구소내에 비식용자원(팜, 천연고무 등)을 활용하여 생물연료인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시범공장을 건설하고, 공동 연구 및 바이오에너지생산을 통해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대 및 인니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코자 추진하게 되었다.

KOICA는 동 사업을 위해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 장비, 분석기기 등 실험실 기자재 지원, 융합공정을 통한

바이오에탄올 시험생산을 위한 플랜트 건설, 관계분야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술지도, LPI측 연구원을 한국에 초청하여 바이오에탄올 생산 전과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인니 전역에 버려지는 팜, 천연고무 찌꺼기 등 비식용자원을 에너지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향후 3년간 총 300만불의 무상지원을 통해 시행되는 동 사업은 인니측에게는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술 확보, 시험생산동 구축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생산기반 마련이 가능하며, 우리나라는 신기술인 바이오연료 생산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양국간 과학기술 교류를 통한 우호를 증진하고 바이오연료 공동기술개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니측의 풍부한 천연자원 확보 및 관련 플랜트 수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OICA 이종선 소장 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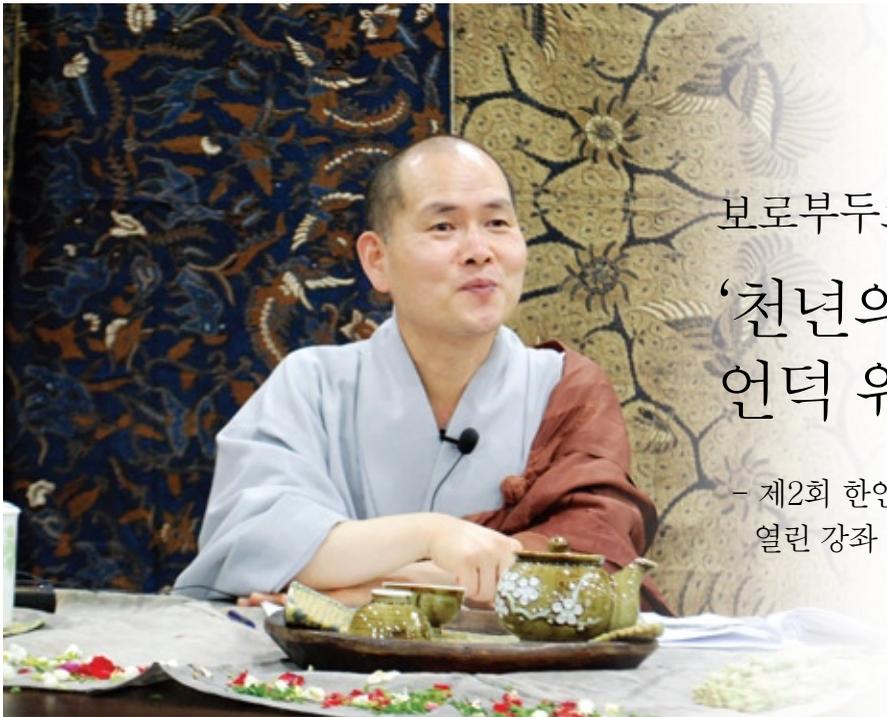
최성호 소장 부임

이종선 KOICA 소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3월 본국으로 귀임했다.

이 소장은 임기 중 ICT 훈련센터 건립, 열대림 복원 목표개발센터 개소, 한국 취업을 원하는 인니 근로자 사전교육센터 건립 등 다양한 프로젝트형 사업뿐만 아니라, 매년 약 300명 인니 공무원의 한국 초청 훈련 및 KOICA 봉사단을 통한 한국어, 컴퓨터, 태권도, 농업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해 왔다. 특히 2004년 12월 발생한 아체지역 쓰나미 피해복구 위한 7개 학교 및 100여 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해 인도네시아측에 인도하기도 했다.

이 소장은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 사업’ 및 ‘정부 전자조달 시스템 개발’이 올 한해의 계획이라고 밝히고 또한 한국 민간원조단체 지원을 통해 지난해 9월 빠당 지역의 주택, 학교, 식수공급 등 소규모 구호사업을 실시할거라고 전했다.

이 소장은 무엇보다 교민들이 베풀어준 격려와 관심에 진심으로 고맙다고 전하며 귀임후에도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 갈 것임을 밝혔다. 귀국 후 성남에 있는 KOICA 본부에서 근무하며 봉사단원 지원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보로부두르:

‘천년의 미소, 언덕 위의 부처님’

- 제2회 한인회 인도네시아문화연구회
열린 강좌 열려

보로부두르 불교사원(Candi Borobudur)은 시공을 초월한 깨달음의 향기가 담긴 불교건축물이지만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아름다움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자립 스님이 역설했다.

제2회 한인회 인도네시아문화연구회(이하 인문연, 회장 사공경) 열린 강좌가 ‘불교와 보로부두르’라는 주제로 13일 한인회문화회관에서 교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려정사의 자립 스님은 보로부두르의 특징과 역사, 인도네시아 불교의 전래 그리고 불교의 특징과 수행방법 등에 대해 강의했으며, 외형적인 규모보다는 전체 구조나 조각이 갖는 불교적 의미를 강조했다.

‘보로부두르, 천년의 미소, 언덕 위의 부처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좌에서 자립스님은 먼저 인도네시아 불교의 특징에 대해 인도를 통해 전래된 남방불교와 중국인들을 통해 전래된 북방불교가 융화되면서, 남방불교의 복식과 북방불교의 승려 그리고 중국식 사원 건축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로부두르에서도 다양한 불교문화가 융합된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중앙아시아지역 밀교의 특징으로 만다라를 상징하는 전체구조, 북방불교의 대표경전인 화엄경의 10지품을 상징하는 다층구조와 부조 그리고 남방불교 양식으로 정상에 배치된 스투파(종모양의 탑) 등을 언급했다.

자립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사리탑 형태인 보로부두르의 정식명칭은 범어로 ‘다사 부미 삼바라 부다’로 ‘언덕 위의 10층 불탑’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행정구역상 보로부두르 사원은 중부자바주(州) 마글랑군(郡)에 속해 있으나 족자카르타주(州)로 많이 알고 있다.

족자카르타에서 서북쪽으로 40km 지점에 위치한 보로부두르는 8~9세기에 중부자바 섬을 지배하고 있던 사일렌드라(Cailendra) 왕조 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머리삐 화산 대폭발로 화산재에 묻혀 약 천 년 이상 존재가 잊혀졌다가 1814년에 영국인 토마스 래플스 경에 의해 발견돼 두 차례의 대대적이 복원공사를 통해

한국-인도네시아 문화 가교 '인도네시아문화연구회'

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가 후원하고 있는 문화단체인 인문연의 사공경 회장은 내달 20 일께 2박3일 일정의 족자카르타와 보로부두르 문화탐방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날 강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공 회장은 “인문연이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문화에 관심이 있는 교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인문연은 인도네시아 부족 소개, 인도네시아 현대사,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독립운동 등의 주제로 열린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고, 더불어 '시로 만나는 인도네시아'와 '바틱 패션쇼로 만나는 인도네시아'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문화탐방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인문연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열린강좌가 한인들에게 인도네시아 문화를 소개하는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본다.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지금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보로부두르의 기능에 대해서, 자람 스님은 문헌의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주변에 8개 이상의 대사원이 있었다며, 보통사람도 수도자처럼 수행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사상에 따라 승려와 불자들이 탑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깨달음을 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불상의 모습이 비슷해 보이는 것은 모두 같은 얼굴과 복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잘 생긴 인도네시아인과 불교가 전해준 인도인의 얼굴이 섞여있다고 묘사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시선의 방향과 손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며 참선 자세와 이를



연결해 설명하면서 직접 시범까지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람 스님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충실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나누시오”라며 마무리했다.

<기사제공: 데일리 코리아>

신선함이 듬뿍

Terong Belanda



아마 이 과일을 드셔보신 교민은 별로 없을꺼라 생각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0년 넘게 살았다는 지인도 이런 과일은 처음 봤다며 이걸 어떻게 먹는 과일이냐며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이름하여 Terong Belanda. 주먹크기 만한 예쁘게 생긴 과일인데 이걸 생으로 먹는건지 요리할 때 쓰는 채소인건지도 저히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Terong은 인도네시아어로 '가지'라는 뜻이며 Belanda는 네덜란드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마 서양 가지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합니다. 영어로는 Tamaillo, Tree tomato로 잘 알려져 있으며, Arvol de Tomate(스페인어로 나무토마토)라 불려집니다. 한국명으로는 '나무토마토'라 불립니다. 여러나라에서 부르는 이름들은 공통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토마토라는 것을 말해주지만 때롱 브란다는 우리가 흔히 먹는 토마토와는 같은 과에 속한다는 것 외에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빨간 새색시 불과 같이 탐스러운 색깔을 지닌 때롱 브란다는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함유된 저칼로리 건강 과일입니다.

때롱 브란다의 학명은 Cyphomandra betacea Semdt.입니다. 때롱 브란다의 식물학적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속씨식물문(Magnoliophyta), 쌍떡잎식물강(Magnoliopsida), 가지목(solanales), 가지과(Solanaceae)입니다. 가지과의 식물들은 우리의 삶과 친숙한 가지, 고추, 토마토를 비롯하여 한의학에서 약재로 쓰이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자양,

강장, 당뇨약으로 널리 알려진 구기자(枸杞子), 소염과 해열작용이 강한 지골피(地骨皮), 진해작용과 이뇨작용이 있어서 널리 이용되는 산장근(酸漿根), 해열 이뇨 각종암 치료에 유용한 용규(龍葵), 잇몸 부중에 쓰는 마령서(馬鈴薯), 진통제 백혈병, 위암, 간암, 자궁암에 쓰고 있는 백영(白英)등이 모두 이 가지과의 식물입니다.

때롱 브란다를 한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성(性)은 한(寒)하고, 미(味)는 산(酸), 미감(微甘)하며, 귀경으로는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이 됩니다.

한성(寒性)으로 인해 해열, 이뇨작용이 있어 더위로 생긴 열을 풀어주고 대사순환을 촉진시키며 소변이 잘 나오게 도와줍니다. 또한 갈증을 없애며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롱 브란다의 원산지는 안데스 산맥을 끼고 있는 페루, 칠레, 에콰도르, 그리고 볼리비아인데, 뉴질랜드에서는 국제적은 수출을 위한 상용작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메단, 보고르 지역에서 많이 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전통시장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큰 마켓이나 과일판매점에서도 볼 수 있는 과일이지만 아직 우리에게겐 생소한 과일이 아닐까 합니다.

때롱 브란다의 생김새는 달걀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약간 큰 달걀모양의 타원형으로 5~8cm입니다. 색깔은 검붉은 색깔을 띠고 있으며 꼭지부위의 줄기가 5cm정도로 길게 달려 있으며 껍질은 윤이 나고 매끄럽습니다. 껍질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로로 보라색갈 희미한 줄이 여러갈래로 있기도 합니다. 만져보면 굉장히 말랑말랑하며 탱탱합니다. 칼로 자르면 쉽게 잘라지는데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한입 먹으면 이게 무슨 맛이 지 하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과육은 주황빛이 도는 노란색으로 그 안에는 더 쫄득한 젤리처럼 주황빛의 속 즙과 노란 씨앗이 버물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키샤 같지만 마르키샤처럼 흘러내리지는 않습니다. 키위와 토마토를 섞은 모습이랄까.. 한 입 먹어보면 처음 먹어보는 생소한 맛이라 맛을 표현하기도 어려운데 먹으면 먹을수록 달콤 짭사름합니다. 약간 신맛도 나고 떼떠름 하지만 이 맛에 익숙해 진다면 또한 우리 식탁에 추천할 만한 저칼로리 건강식의 과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때롱 브란다를 생으로 먹을 때는 반으로 잘라 숟가락으로 과육을 떠서 먹는데, 설탕을 조금 뿌려서 먹으면 더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은 익은 과일을 손으로 살살 주물러서 부드럽게 한 다음 꼭지를 떼고 입에 물로 바로 과육을 짜서 먹습니다. 생각보다 특별한 맛은 없고 신맛이 강해서 주스를 만들어 먹거나 시럽, 샐러드나 식욕을 돋우는 디저트, 각종 음식의 데코레이션에도 다용합니다. 특히 루작(rujak)이나 인도네시아 식초절임 acar, 삼블을 만드는 재료로도 쓰입니다.

때롱 브란다의 껍질은 질기고 쓴맛 때문에 벗기고 먹습니다. 껍질을 벗기는 방법은 때롱 브란다를 넣고 폭 잠길 만큼 뜨거운 물을 부어 3,4분 동안 두었다가 찬물에 넣어 식혀서 칼로 살살 벗기면 잘 벗겨집니다.

저지방 저칼로리의 때롱 브란다는 일반 과일이나 채소보다 섬유질과 무기질 및 비타민 (A, B6, C, E, Thiamine)이 풍부하여 항산화제 함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과육 100g당: 수분 85g, 단백질 1.5g, 지방 0.06~1.28g, 탄수화물 10g, 질소 0.223~0.445g, 섬유질 1.4~4.2g, 회분 0.61~0.8g, 비타민 A 150~500IU, 그리고 비타민 C 25mg,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종 비타민(A, C, E),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셀레늄, 타닌 등은 강력한 항산화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항산화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야채와 과일을 매일 먹으면 중풍, 암, 심장질환, 백내장 등을 예방하고 신체 건강의 균형을 맞추어 장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85g의 수분함유량으로 수분의 양이 풍부하니 이뇨작용을 도와 신장의 기능을 돕는데 그 효능을 발휘한다고 하였습니다. 섬유질도 풍부하여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저당식품으로, 다이어트 식품으로서도 안정 맞춥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때롱 브란다의 자료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우리 몸을 젊게 유지해주는 항산화효능이 뛰어난 과일임은 분명합니다.

모르던 과일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먹어보는 것도 인도네시아에 사는 재미가 아닐까 하는데요. 생소하지만 알면 알수록 종류도 많고 미처 알지 못한 다양한 열대과일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라고 생각합니다.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뒤로하고 몸에 좋은 건강한 식품을 섭취한다면 신선한 자극과 재미를 줄 것입니다.

글: 술한의원 원장 김효영
vitavic@naver.com/ 021-7278-7410

노인대학 교실

노인들을 위한
공간을 꿈꾼다

노인대학

〈취재: 김영민 편집위원〉

자카르타, 한국 노인을 위한 대학이 있다.

지난 3월 어느 월요일 아침 10시, 열세 분의 어머님들께서 노인대학에 출석하신다. 오늘은 뭘 배울까 들떠있는 어머님들 그리고 그들과 하루를 동행하게 될 일곱 분의 자원봉사자들. 모두들 오랜 친분이 있는 분들이지만 이날 그들의 수다로 노인대학 강의실은 금새 시끌벅클 해졌다.

어머님들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노래도 하고 춤을 배운다. 노래 가사 중 ‘사랑합니다~’에 맞춰 어머님들과 봉사자들은 따뜻한 포옹으로 체온을 나눈다. 잠시 숨을 돌리고 이젠 간단한

체조를 통해 찌뿌득한 몸을 풀고 풍선불기, 풍선 돌리기 놀이를 하며 한껏 웃고 한껏 목청을 돋운다. 놀이에서 진 어머님들은 엉덩이로 큼지막 하게 이름을 쓴다.

그리고 12시 즐거운 점심시간. 왕후의 식탁 못지않은 정성 가득한 비빔밥과 반찬들, 그리고 간식들을 즐기며 다시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눈다. 이어지는 2시까지의 자유시간, 한 어머니께서 준비된 노래방 반주에 한 곡절 뽑고 두 분이 가운데로 나와 지르박을 추신다. 그리고 하교……

노인대학의 존재는 건강한 사회의 한 표본으로서 국내에선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다. 작은 규모의 교민사회에 노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노인대학이 존재한다는 것은 건강한 교민사회의 상징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중심의 한인사회와 어린이 교육중심의 가정문화 내에서도 사회문화적 균형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노인대학, 그 화려한 시작

노인대학은 한일월드컵의 열기가 뜨거웠던 2002년 한인사회 전체 차원으로 논의되어 그 해 9월 자카르타 한마음교회당내의 한 공간을 차지하며 설립됐다. 점점 늘어나는 교민 수와 비례 해 노인들의 수도 늘어났고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30년의 역사를 넘긴 교민사회의 역사에 비취볼 때 다소 늦은 감은 있었지만 비로소 ‘노인을 위한 공간-노인대학’이 공식화된 것이다.



위: 노인대학장인 한마음교회 장영수 목사

아래 : 경기도 광주군에 소재한 소망교회 성도의 묘.
노인대학은 노인들과 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국의 서울 소망교회와 함께 노인들의 장례를 돕고 있다.

많은 노인들이 노인대학에 등록했고 또한 많은 봉사자들이 자원했다. 노인대학 측은 본국의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보다 양질의 교육을 선사했다. 주말을 제외하고 주5일을 등교할 수 있게 된 노인들의 마음은 노인대학 마냥 즐거웠다.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엔 ‘술 한의원’과 ‘재필 미용실’에서 어김없이 방문해 건강진료와 미용서비스 무료봉사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매년 어머님들을 모시고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 등 노인대학의 시작은 노인들과 봉사자 모두 열정으로 타올랐고 화려했다.

노인대학 설립 1개월 후 한마음교회에 부임한 장영수 목사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7년 반 이상 노인대학을 맡고 있는 노인대학장이다.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항상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장영수 목사는 “작은 교민사회 내에 노인대학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교민들의 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노인대학의 실질적 도움

경기도 광주군에 소재한 소망교회 성도의 묘. 본국이 아닌 타국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하고 또 떠나 보내야만 하는 노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한마음교회에서 서울 소망교회에 특별히 부탁해서 마련해 놓은 선산이다. 부모들의 마음은 결국 자식들과 그 가족에게 향하게 되듯 선뜻 입 밖에 내기 꺼려하는 일을 노인대학에서 준비해 놓고 있다.

교민이라면 종교에 불문하고 노인대학이나 한마음교회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장영수 목사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장례에 관해 노인대학 측에서 준비하는 것이 노인들과 가족들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겠냐”며 “모든 장례 절차를 한마음교회와 서울 소망교회에서 대행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노인대학에 등교하는 어머님들은 65세 이상 90세에 까지 이르고 있으며 교민 몇 분이 이미 장례절차를 거쳐 소망동산에 안치되었다.



점점 작아지는 노인대학

열세 분의 어머님들과 일곱 분의 봉사자들이 모여 한 때를 보냈던 3월 이날의 모든 일정은 10평 남짓한 실내에서 이뤄진다. 방안 주위로 길게 놓여있는 소파가 공부하는 의자이고 가운데 공간이 그들에게겐 뛰어 노는 운동장이 된다. 대학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좁고 초라하다.

한마음교회가 이전하고 새롭게 마련된 교회터가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 이곳엔 이 분들만 남게 되었다. 이전 된 교회와의 거리 탓에 두 집 살림을 해야 하는 봉사자들의 수고 또한 더해져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운영자금의 부족도 노인대학 축소이유에 한

커버스토리

몹을 하고 있다. 등록비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 한마음교회와 몇몇 개인 후원자들의 액수로는 살림살이를 줄여야 하는 것 밖에 딱히 대안이 안 생긴다.

노인대학과 경로당의 성격이 혼합된 초기와 다른 성격의 변화도 한 몹을 한다. 처음 설립 당시 의욕을 가지고 한국 내 우수한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이곳의 특수성에는 적합하지 못했다. 노인들이 바라는 것은 작았다. 동료들과 텔레비전을 보거나 같이 모여 이야기 하는 것 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위안을 받았다.

부쩍 줄어든 등교일, 내일은 어떡하나...

노인대학 초창기, 주말을 제외하곤 매일 어머님들의 아침을 들떠 있었다. 보통의 학교와 같이 주5일 아침 등굣길은 즐거움 그 자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홀 또 사홀로 줄어들더니 지금은 월요일, 목요일만 문을 여는 형편이 되었다. 게다가 기나긴 여름, 겨울 방학을 더하면...

한인사회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 보자는 초기의 열정은 줄어들고 급기야는 한마음교회에서만 운영해야 하는 강요된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급기야 어머님들은 당장 수업이 없는 내일 걱정으로 긴 한숨만 쉬고 있다. 어머님들은 어머님대로 교회측은 교회대로 즐거워야 할 대학생들이 풀어내야 될 하나의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짐은 점점 무거워 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아침에 눈을 뜨며 드는 생각... '하루를 어떻게 또 보내나...'

어머님들의 말, 말, 말...

6년 전 인도네시아에 온 후 4년 전부터 노인대학에 등교하기 시작한 이선주(78) 어머님은 언어, 기후, 교통편, 말벗의 그리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말한다. "처음 등교는 쑥스러웠지만 여기에 나와보니 말벗이 있어 재밌다"며 노인들의 등교를 적극 추천했다.



땅그랑에 거주하고 있는 이광자(68) 어머님은 "이런 곳이 몇 곳 더 있었으면 좋겠다"며 멀리 거주 하다 보니 자식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한다. 또한 "목사님이 힘드시까 봐 날짜를 더 늘려달라고도 못하고 있다"며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 만이라도 경로당과 비슷한 공간만 있어도 너무나 행복할 것이라고... 노인대학에 가는 날이면 마음이 들떠 행동도 빨라진다고.

찌부부르에 거주하고 있는 채영순(73) 어머님은 "한국에는 각 자치구역별로 버젓한 노인대학이 설립되고 지원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한국정부 차원의 원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대사관에 이 말을 전해줬으면 한다고 한다. 또한 어머님은 "자주 아플 수 밖에 없는 노인들을 위해 이곳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특별할인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며 결국 자식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심정을 토로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노인대학도 쌓여가는 근심, 걱정

점점 축소되어가는 노인대학의 현실 앞에 대학 측의 근심도 쌓여간다.

경제중심의 사고와 자녀 교육에 집중되어있는 사회 풍토도 봉사자와 운영자금 이상으로 대학 운영의 어려움에 한 몫을 하고 있어 보인다.

노인들을 위한 공간을 꿈꾼다

노인대학의 존재를 알고 갑자기 취재 욕심이 났다. 근사한 교정에서 멋지게 짜인 프로그램을 즐기는 노인들을 떠올렸고 뭔가 근사한 글이 될 거라 들떠있었다. 노인대학 등교 일에 맞춰 들른 교정은 그 간의 생각을 말끔히 지워 버렸다.

노인대학측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취재해 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노인대학은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어머님들은 그 시간만큼은 너무 행복해 했었고 봉사자들의 가슴은 너무도 뜨거웠다. 다만 강요된 상황으로 인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노인대학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하교시간이 가까워 질수록 그들의 입을 통해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것 만 뻔다면...

잠시 노인들을 위한 공간을 꿈꿔 본다. 젊은이들이 가진 공간의 십분의 일 만이라도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그들은 그 공간속에서 너무도 행복해 할 것이다.



소박했던 어머님들의 말씀들이 떠오른다.

“처음 등교가 쑥스러웠지만 여기에 나와보니 말벗이 있어 재밌다”

“이런 곳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힘드실까 봐 날짜를 더 늘려달라고도 못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대학은 지원도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정부 차원의 원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주 아플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곳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특별할인만이라도...”



버젓한 노인대학을 만들어 가겠다는 처음의 의욕과는 달리 한국과 다를 타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표출되고 있다.

노인대학과 경로당의 중간성격이 되어버렸다는 말처럼 현재 노인대학은 그 본연의 의무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금과 봉사자를 위시한 노동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우선 봉사자의 지속적인 참여가 쉽지 않다. 봉사자의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끈끈한 팀웍이 요구된다. 노인대학 초기 한마음교회 교우뿐만 아니라 각 종교단체 및 개인들이 참여했지만 즐거움과 책임감으로 끈끈이 묶여야 하는 팀웍을 만들어 내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또한 노인들과 그 가정에 일체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는 뜻으로 운영을 시작한 탓에 운영자금의 부족은 예상된 것이었다. 다행히 노인대학 초기 한인사회내의 높아진 관심 탓에 단체 및 개인의 후원을 끌어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상당부분을 한마음교회 내에서 책임져야 하는 정도로 축소되었다.

테러 정국

글 김문환

1981년 3월 28일 오전 8시, 48명의 승객과 5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자카르타를 출발하여 수마트라 메단(Medan)으로 향하던 가루다 항공(Garuda Airline) 제206편 DC-9 항공기는(기명 Woyla) 오전 10시 55분에 메단시 폴로니아 (Polonia) 공항에 착륙하도록 되어 있었다. 착륙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10시 10분경 갑자기 조종실로 한 명의 불청객이 뛰어 들었다. “꼼짝 마라! 이 비행기는 지금 납치되었다.” 라고 고함을 치며 총기로 협박하고 있었다. 객실에는 다른 4명의 납치범들이 이미 승객과 승무원들을 제압하여 뒷좌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납치범들은 기장에게 스리랑카 콜롬보로 향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스리랑카까지 갈 연료가 부족하다는 기장의 답변에 일단 말레이시아 페낭(Penang)에 기착하기로 유도되었다. 지금 그 시각 국군 수뇌부는 전군지휘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말루꾸 주 암본(Ambon)에 모여 있었고 오직 국군 부사령관 겸 치안질서회복사령관(Kopkamtib)인 수도모 제독만이 자카르타 사령부를 지키고 있었다. 수도모 제독이 긴급 타전한 전문이 국군사령관 겸 국방부장관인 유습 대장과 같은 테이블에서 점심을 들고 있는 국군정보참모부장 베니 무르다니 중장에게 급히 전달되었다. 항공기가 납치되었다는 사실과 그

대응조치는 국방부가 관장한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전 공수 낙하훈련 중 다리 골절상을 당하여 자대에 머무르고 있던 특전사 소속 테러진압 특수부대인 꼬빠산다(Kopasandha) 대대장 신통 뽀자히판(Sintong Pandjahitan) 중령은 베니 장군의 긴급전화를 받았다. “신통, 귀관 부하 중 즉각 정예요원 30명을 선발하여 대기하라. 목적은 항공기 인질 구출작전이며, 출발시간은 곧 하달한다.” 납치기는 페낭에서 급유를 마친 뒤 인도네시아 영공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지기를 원했던 납치범들과의 절충 끝에 일단 방콕 돈 무양(Don Muang) 국제공항에 착륙하였다. 저녁 7시 25분 납치범들과의 협상을 위해 국가정보원장(BAKIN)인 요가 수가모 대장은 수행원들을 이끌고 방콕으로 먼저 출발하였다. 베니 장군은 밤 9시가 되어서야 암본(Ambon)에서 자카르타 할림공항에 도착하였다. 보좌관인 테디(Teddy Rusidi) 대령의 브리핑을 받고 곧장 수도모 제독 집무실에 들러 얘기를 나누었다. “어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국군은 납치범들의 요구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가 전군지휘관회의의 결의사항임을 재확인하고 수도모 제독과 함께 밤 10시경 대통령 사저로 향하였다. 대통령은 근심 어린 표정을 한 채 사롱차림으로

이들을 맞았다. 베니는 납치범들의 요구사항을 먼저 브리핑하고 대책을 건의하였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첫째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 둘째 안전한 제3국으로 망명을 허용할 것, 셋째 미화 150만 불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어느 것도 들어 줄 수 없습니다. 군사작전만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의에 찬 베니 장군의 보고를 듣고 있던 대통령은 “당신 생각에 승산을 어떻게 보시오?” 라고 물었다. “네, 반-반입니다.” 그러자 “좋소, 그렇다면 실행에 옮기시오!” 라는 대통령의 최종재가가 떨어졌다.

않는 게 확실합니까? 여기서 군사작전을 하겠다는 겁니까?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빈정거렸다. 베니의 얼굴이 경직되자, “그렇다면 좋소, 새벽 6시에 우리 수상을 만나도록 주선은 하겠소. 수상과 알아서 상의해 보시오.” 일단 베니는 특공대가 대기하고 있는 항공기내로 돌아갔다. 새벽 6시 외무장관이 약속한대로 베니 장군은 요가 대장, 하스난 하빔(Hasnan Habib) 주 태국 대사, 수기리(Sugiri) 교통부 항공청장 등 대동하고 프렘(Prem Tinsulanonda) 태국수상 관저를 방문하였다. 베니는 우선 일행들이 탄 항공기 착륙허가를 내려주신 수상의 배려에 대해 수하르도



테러범 소탕작전 중인 경찰청 소속 대 테러부대인 '덴수스 88'

그 시각, 방콕의 납치범들은 스리랑카로 가지 않으면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으며 먼저 도착한 요가 대장은 아직 태국 당국으로부터 군사작전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방콕시간 새벽 12시 30분, 특공대원들을 실은 DC-10이 민항기로 위장하여 피랍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정박하며 모든 조명등을 끄자마자 3대의 쟁차가 슬며시 접근하였다. 태국 군 당국에서 베니 장군을 모시기 위해 보낸 차량들이었다. 공항 VIP 접견실에는 태국 외무부 장관 Siddi와 스리랑카 대사 Irangani가 기다리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피랍기가 태국을 이륙하는 걸 원치

대통령의 감사 말씀을 전하는 예의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납치배경과 그들의 요구사항을 설명 드리면서 군사행동 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강조하며 재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태국의 고위층들은 1972년 'Black September'라는 무장단체에 의해 자행된 방콕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테러사건의 악몽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터라 무력행사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수상 각하, 이번 사태는 저희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프렘 수상은 아직도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베니 장군, 오늘 11시까지 답변을 주겠소. 일단 돌아가 수면을



좀 취하도록 하세요. 베니 장군은 낮 12시경 누군가 깨우는 기척에 눈을 떴다. 군사작전에 대한 태국정부의 최종허가가 떨어졌다는 전갈이었다.

한편 인질범들은 시한을 정해놓고 80명의 정치범 석방, 항공기 급유, 미화 1백 5십만 불을 준비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위협하였다. 정치범이란 이슬람 국가 건설을 주장하며 극단주의 행동을 자행하다 수감된 자들이었다. 긴장이 고조되어 갔다. 오후 늦은 시간, 신통 중령은 특공대원들을 하선시켜 재차 반복훈련에 들어갔다. 하루 시간 중에 인체 리듬에 제일 취약한 시간대가 새벽 4시 30분대라고 안티 테러(Anti-terror) 교범에 나와 있다. 인질범들은 혹시 이러한 교범까지도 간과할지 모른다. 베니는 공격시간을 앞당겨 새벽 3시로 정하고 신통의 귀를 빌렸다. 드디어 시계바늘이 2시를 치자 전 대원들은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 신통 중령의 신호와 동시에 대원들을 피랍기로 접근시킬 트럭이 접근하였다. 모두 차량바닥에 이중으로 포개 누웠다. 베니 중장도 예외 없이 부하들 몸체 위에 드러누웠다. 신통은 깜짝 놀랐다. 베니 장군이 납치기까지 동행하는 것은 원래 시나리오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2시 45분 신통 중령의 신호에 따라 전광석화의 공격이 피랍기 후문으로부터 개시되었다. 3

‘덴수스 88’가 창설되기 이전까지 인도네시아의 모든 대 테러작전을 비롯한 특수작전을 전담한 특수부대인 꼬빠수스(Kopassus). 이 부대는 1952년에 KKT이라는 부대명칭으로 창설되어 RPKAD, 꼬빠산다(Kopasandha)라는 이름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부대는 앞서 소개한 가루다 항공 납치범 구출작전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와의 분쟁, 이리안 자야 병합 군사작전, 9.30 쿠데타 진압 등 수많은 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하여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에 이르렀다.

명의 인질범들은 사살되었으며 나머지 2명은 중상을 입고 몇 시간 후에 사망하였다. 아군 측에선 아흐맛(Achmad) 준위만 총상을 입었으나 다음날 결국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헤르만(Herman) 기장은 인질범이 쏜 총탄에 중상을 입어 3일 후 방콕의 부미불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뿐, 48명의 승객은 전원 무사히 구출되었다. 그리고 이틀 후 대통령 궁에서 수하르토 대통령은 이 작전에 참가한 30명의 특공대원들 모두에게

최고 무공훈장인 「빈땅 삭띠(Bintang Sakti)」를 수여하였다. 이상은 인도네시아 육군 대 테러부대인 꼬빠산다(Kopasandha)가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던 가루다 항공기 납치사건의 줄거리를 요약한 것이다.

센푸리은행 국정조사위원회가 3개월 간의 임무를 마치고 3월 4일 최종보고서를 내자마자 숨쉴 틈도 주지 않고 미국정부가 1천만 불의 현상금을 내건 바 있는 둘마틴(Dulmatin)이라는 제1차 발리폭탄 테러 주범을 자카르타 교외 은신처에서 그의 경호원 2명과 함께 사살하였다. 경찰청 대 테러 특수부대인 덴수스 88(Densus 88)은 테러범들의 훈련기지인 아찌 지역에서 잔당소탕 작전을 벌이며 인도네시아 정국은 테러 모드로 전환되며 센푸리 은행 국정조사를 비롯한 여타 국정 현안들이 잠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테러 역사는 1957년 자카르타 중심지인 찌끼니(Cikini)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녀들의 학교행사에 참석하고 나오는 수카르노 대통령을 수류탄으로 공격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위에 언급한 1981년 가루다 항공기 납치사건, 1985년의 보로부두르 사원 폭탄 테러, 2002년 제1차 발리 차량폭탄 테러, 2003년의 매리엇 호텔 자살폭탄 테러, 2004년의 호주대사관 차량폭탄 테러, 2005년 제2차 발리 자살폭탄 테러, 2009년의 매리엇 호텔 및 리츠 칼튼 호텔 연쇄 자살폭탄 테러사건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들의 배후엔 알 카에다의 하부조직인 저마 이슬라미야(JI)와 연계된 테러조직이 있었다. 수하르또 정권이 붕괴된 이후 치안공백의 혼란기를 틈타 술라웨시 같은 오지에 테러조직이 침투하여 그들의 훈련기지로 삼을 정도로 국내 치안상태는 한 때 극도로 취약한 적이 있었다. 2004년 출범한 SBY정권은 테러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며 대 테러진압 부대인 '덴수스 88'을 통해 최근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종전의 수동적인 폭탄테러에서 중무장 형태의 공격형으로 전술을 바꾸고 있는 아찌 테러범에 대해서도 철저한 소탕작전을 펴는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2010년 3월 중순에는 밤방 다누리 경찰청장이 참관한 가운데 조꼬 수산또 국군사령관 주도로 할림 공군기지에서 군, 경 대 테러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 테러 척결에 대한 의지가 갈수록 확고해지고 있다. 육군의 대 테러부대인 꼬빠수스(Kopassus)가 전담하며 국제적인 명성까지 쌓은 대 테러작전을 1999년 경찰청이 국군에서 분리된 후 자체 대 테러부대인 덴수스 88(Densus 88)을 창설하여 2000년 이후 횡행하는 테러범들을 소탕하는데 혁혁한 전과를 세우고 있다.]

덴수스 88(Densus, *Detasemen Khusus 88*)은 2002년 발리 폭탄테러가 발생하자 그 다음해에 미국이 제공한 자금과 교육훈련을 기반으로 2003년 6월 30일 경찰청 기동부대(Brimob) 예하의 대 테러특수부대 조직으로 창설되었다. 전직 CIA, FBI, 재무부 비밀국(Secret Service) 요원들은 첨단장비 운용과 부대원에 대한 고도의 훈련을 책임져 왔으며 호주 연방경찰은 도청기술, 문자메시지 해독 등 통신기술과 DNA 검사와 같은 법의학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부대명칭에 88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것은 2002년 발리 테러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호주인 사망자가 88명이었던 데 비롯된다.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02년 발리 테러를 비롯하여 저마 이슬라미야(JI)가 주도한 일련의 폭탄테러의 주범인 아자리(Dr. Azahari)는 2005년 11월 9일 동부자와 말랑(Malang) 근교 주택가에 은신하던 중 덴수스에 의해 사살되었고, 2002년 발리 테러와 2009년 7월 매리엇, 리츠 칼튼 호텔 배후 조종자인 누르딘 톱(Noordind M Top)도 2009년 9월 17일 중부자와 솔로 인근에서 덴수스와의 교전 중 사살되어 국민들의 신뢰가 나날이 두터워지고 있다. 아무쪼록 덴수스와 꼬빠수스 같은 대 테러 전문부대가 대 테러와 민생치안의 파수꾼이 되어 우리가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있는 이 나라의 치안이 안정되어 더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하여 내실 있고 규모 있는 한인사회로 발전되기를 기원할 뿐이다.



인터넷과 네트워킹

컴퓨터가 일반화되고 1인 1 PC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컴퓨터를 전화기처럼 아주 쉽게 사용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아직은 일반 사용자들이 모르고 그냥 사용하지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여 이번엔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흔히들 인터넷이라고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컴퓨터간 파일을 공유 할 때, 다른 컴퓨터에 있는 프린트를 사용하고자 할 때 이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DATA CABLE, LAN(Local Area Network) Card, 스위칭 Hub(컴퓨터들을 LAN에 접속시키는 네트워크 장치) 만 있으면 일단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Router 기능이 있는 모뎀이 더 있으면 인터넷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인터넷 설치하러 오는 기사들이 설치하는 것이 Router 기능 모뎀 장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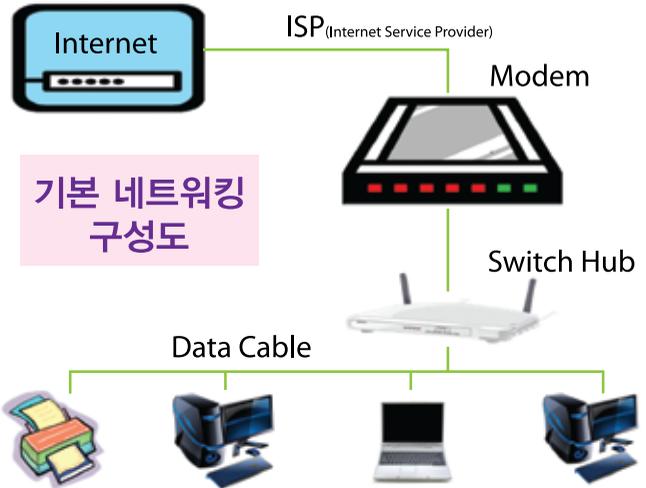


모뎀(MODEM)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신호를 내부 네트워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신청하면 설치 시 가져오거나 별도로 구매해 놓으라고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 말하는 장비이며, 이걸 내부 네트워크 구성 시 꼭 필요한 장비는 아니며 인터넷 사용시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 모뎀도 별도로 SETTING해서 사용하는 장비이나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알아서 SETTING해 주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은 잘 모르셔도 사용에는 지장이 없을 듯 합니다.



기본 네트워킹 구성도



스위칭 허브

(SWITCHING HUB)



각각의 컴퓨터 및 모뎀을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나누어 전송해 주는 장치입니다. 사거리에 아주 똑똑한 교통경찰이 흐름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뎀에도 허브 기능이 있어 가정집이나 아주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 구성 시 허브 필요 없이 모뎀 하나로 설치 사용 가능합니다. 특별한 설정 없이 그냥 각각의 PORT 에 케이블을 연결하면 됩니다.



컴퓨터

LAN CARD



컴퓨터를 구매하시면 기본적으로 LAN CARD는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무선으로 구성하신다면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별도로 말씀하셔야 무선 LAN CARD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트북도 만약 무선 LAN CARD 지원이 안되면 추가로 무선 LAN CARD 를 장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LAN CARD나 무선 LAN CARD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내 컴퓨터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 -> 속성을 선택 -> 하드웨어 선택 -> 장치관리자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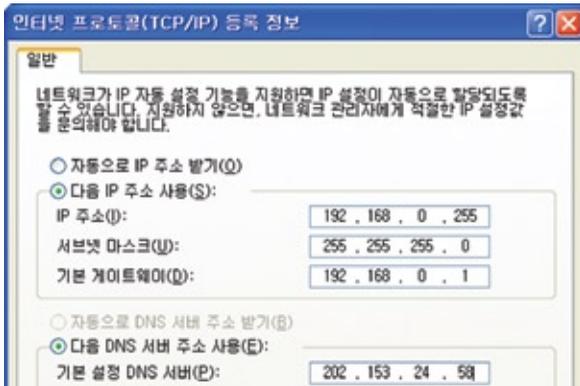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이와 같이 ethernet, 과 wireless(wifi) 등이 있으면 유무선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준비된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내 네트워크 환경**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 -> **속성**을 선택 -> **로컬 영역** 더블 클릭 -> **로컬 영역 연결 상태 화면의 속성** 선택 -> **인터넷 프로토콜(TCP/IP)** 선택 후 속성 클릭



상단화면에서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기본값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가 나왔지만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조에 접근한다 생각하시고 용어에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P(아이피)

인터넷상에서 라우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네트워크 주소와 일치하는 개념으로 부여된 32 비트의 주소로서 **내가 가진 컴퓨터의 주소**라고 이해하십시오.

SUBNET MASK(서브넷 마스크)

서브넷(subnet)은 “subnetwork을 줄인 말로서 어떤 기관에 소속된 네트워크이지만 따로 분리되어 있는 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해병전우회가 있다면 그 밑에 재인니 해병전우회 모임 이라고 이해하십시오.



김 신
IT Engineer
kmsms007@gmail.com

GATEWAY(게이트웨이)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포인트입니다. 우리아파트 1단지에서 2단지로 통하는 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DNS 서버

Domain Name Server 의 약자로 인터넷 도메인 이름 (예) www.naver.com)들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IP 주소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자동으로 설정하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주소들로 셋팅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파일 및 프린트 공유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컴퓨터가 알아서 처리하는 부분이지만 하나 보안상의 문제로 규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대문만 열어주면 나머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니 우리 대문만 함 열어 볼까요?

시작버튼 누르고 **설정** 선택 후 **제어판** 클릭 ->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 클릭 -> **다음** 클릭 -> **다음** 클릭 -> **연결 끊긴 네트워크 하드웨어 무시** 체크 후 **다음** 클릭 -> **예** 선택 후 **다음** 클릭 -> **컴퓨터 설명, 컴퓨터 이름** 입력 후 **다음** 클릭(컴퓨터 이름은 변경하지 마세요) -> **작업 그룹 이름** 입력 후 **다음** 클릭 -> **파일 및 프린터 공유 사용** 선택 후 **다음** 클릭 -> **다음** 클릭 -> **마법사를 끝냄. 다른 컴퓨터에서 마법사를 실행할 필요 없음** 선택 후 **다음** 클릭 -> **마침** 클릭 -> **시스템 재부팅**

컴퓨터가 재 부팅된 후

내컴퓨터 나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 공유하고자 하는 파일을 공유합니다. 공유하고자 하는 폴더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공유 및 보안에서 네트워크에서 이 폴더 공유를 선택



다른 사용자가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만 있고 수정할 수 없게 하려면 네트워크에서 이 폴더 공유 만 선택. 수정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면 네트워크 사용자가 내 파일을 변경할 수 있음 선택.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권한 설정 프로세스가 진행된 후 폴더에 손 모양의 표시가 되면 완성.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컴퓨터를 다른 컴퓨터에서 열어보려면 시작 버튼을 누르고 실행을 선택합니다.

빈칸에 WWW접속하고자 하는 컴퓨터 명 이나 ip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상대방 컴퓨터에 공유 허락된 파일이나 프린터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유폴더가 많으면 보안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바이러스의 피해 및 원본파일의 손상 등 잦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하여 컴퓨터의 상태를 항상 점검하고 유지할 수 있는 관리자의 도움을 받으신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인터넷 설치' 와 '네트워크를 설치' 는 다른 말인가요?
참시 인터넷의 어원을 살펴보면

1969년 미국 국방성의 지원으로 미국의 4개의 대학을 연결하기 위해 구축한 알파넷(ARPANET)이 시초이며, 처음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구축되었지만 프로토콜(쌍방간에 통신 방식을 정의한 규칙)로 TCP/IP를 채택하면서 일반인을 위한 알파넷과 군용의 MILNET으로 분리되어 일반화 되기 시작했으며, LAN 등 소규모 통신망을 상호 접속하는 형태에서 점차 발전하여 현재는 전세계를 망라하는 거대한 통신망의 집합체가 된 것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말은 전세계 네트워크 망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며, 이는 전세계 어디에 있는 정보든 원하는 대로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보의 바다 인터넷!!!

자유로운 인터넷 바다의 항해를 위해서 일단 컴퓨터 부터 점검하고 이해하면서 사용하신다면 좀더 편안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 * *

지난 호 인터넷 관련 기사가 나간 후 몇몇 분들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역시 속도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워낙 인터넷 기반 환경의 부재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라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지역을 알려주신 분은 지역마다 좀더 나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독자들이 알고 싶은 컴퓨터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신임 회장에 안연숙, 이청민 씨

작년까지 회장을 맡아서 봉사하다가 사퇴한 이수진, 이종숙님의 뒤를 이어 안연숙, 이청민님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Museum Tour

정기적인 국립 박물관 한국어 안내가 매월 첫째 화요일과 셋째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국립박물관 현관 로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유진, 이성래씨가 박물관직원을 위한 언어교육과정을 위해 매주 월요일마다 한국어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봉사자들이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스튜디오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3월 31일 한국국제학교 102명의 4학년 학생과 선생님들을 모시고 2시간정도 국립박물관투어가 있었습니다. 투어를 위해 김현숙, 김효숙, 박선희, 안미경씨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School Program

지난 3월 1일과 31일 스쿨프로그램은 정기모임을 김영덕, 기경화님 집에서 개최했습니다. 팀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김영덕님을 중심으로 4월 9일 한국국제학교에서 6학년 대상으로 족자발표를 위해

오픈 강좌

“영부인 이야기, 내조와 권력”

- 강사: 김문환

4월의 열린 강좌는 4월 24일(토) 9시 30분에 헤리티지 도서관에서 시작되어 11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이날은 김문환 선생님께서 강사로 수고를 해주실 예정이며 제목은 “영부인 이야기, 내조와 권력”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한국학교 초등학교 6학년이 족자로 수학 여행을 가기 때문에, 사전에 족자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Photo Club

사진반은 3월 27일 Sentral Senayan 1층의 사진 및 미술전시회 관람후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15일(목요일) 10시에 Ancol Pasar Seni로 출사예정입니다. 신입 회원을 모집하오니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기에 담고 싶은분들을 기다립니다

공동회장

안연숙 0815-9741-851 / 이청민 0811-818-213

모집안내

올해 9월에 헤리티지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Museum Tour guide Training Workshop에 참가자 모집합니다.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온 분들과 친구가 되어,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유물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4월 중에 신청 접수 받아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여성 네트워크인 KOWIN 인도네시아 지회에서 마련한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참여와 후원 바랍니다.

I. 밀알한글학교

밀알한글학교가 개강했습니다. 교민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인도네시아인 등 한글을 배우고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주말학교입니다.



학교이름	장소	수업일시	비고
자카르타 한글학교	코리아센터	토 10:00~12:00	유치반/ 유희정 지도
		토 10:00~12:00	초등학생반/ 강승은 지도
		토 12:00~12:30	동요부르기/ 송아름 지도/ 격주
밀알한글학교 땅그랑	교민교회	목 18:00~20:00	성인반/ 조은숙 지도
		금 15:00~17:00	어린이반/ 장은영 지도
		금 15:00~17:00	성인반/ 김화경 지도
밀알한글학교 찌까랑	임마누엘교회	목 10:00~12:00	성인 초급/ 김석주 지도
		목 16:00~18:00	성인 중급/ 김석주 지도
		금 15:00~17:00	어린이반/ 한은희 지도
밀알한글학교 찌꾸빠	무지개공부방	목 10:00~12:00	성인반/ 강현영 지도
		목 15:00~17:00	어린이반/ 강현영 지도

수업료: 무료, 문의: 김석주 교사 021-9288-7385
한글교사로 봉사하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II. 김치 페스티벌

KOWIN은 세계 10대 건강음식이자 선조의 지혜가 담긴 우리음식 김치를 인니 거주 외국인이 체험하도록 “김치 페스티벌” 을 준비하였습니다.



- 행사: 김치 페스티벌
- 대상: 모든 외국인(가사도우미 제외)
- 언제: 4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프로그램: - 김치의 종류와 영양가 소개
- 김치 만들기 체험
- 직접 만든 김치를 선물로 증정
- 어디서: 한국관 (Jl. Jen. Sudirman I, No1, Panin Bank Center, 720-7322)
- 참가비: 무료
- 문의 및 예약: 배정옥 (0812-807-8607)
- 후원: 인도네시아 여성부, 한국부인회
- 자리가 한정되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Ⅲ. 어깨동무 상담

답답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깨동무는 여러분의 친구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상담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들이 상담을 받으며,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상담문의 및 예약시간

종류	시간	장소 및 전화번호	비고
전화 상담	매주 화-금 14시-17시	021)9826-7921, 9826-7925	활동 중
개인 면접 상담	매주 화 10시-12시	부인회 사무실 2층	활동 중
카운슬러 교육과정	매주 월 9시30분-13시	한국학원 2층	활동 중
MBTI 검사 (중등 3학년-성인)	예약 접수	부인회 사무실 2층	무료
MMTIC 검사 (초등 3학년-중등 2학년)	예약 접수	부인회 사무실 2층	무료

상담전화: 021) 9826-7921, 9826-7925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인도네시아 지부 담당관 배정옥

한인뉴스
정기구독자
모집합니다.



한인뉴스는 보다 많은 교민들에게 정기적으로 한인사회의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정기구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정기구독 신청 방법

하기 한인뉴스 계좌번호에 정기구독료를 납부하시고

1. 성명(한글 / 영문)
2. 주소
3. 연락처(회사나 자택 / 핸드폰 번호)
4. 구독료 납부 영수증을

팩스: 021-526-8444 나 이메일: haninnews@naver.com
로 보내주시면 정기구독 신청확인서와 함께 1년간 한인뉴스를 발송해 드립니다.

● 정기 구독료 (1부/1년)

- JABOTABEK : 30만 루피아/년
- 기타 지방 : 40만 루피아/년

● 계좌번호

- A/C No : Bank Woori Indonesia
DDA-913-014112 (Rp 계좌)
- Name : HANINEWS Fax : (021) 526-8444



다문화가정 자녀와 어머니, 외국학교에 다녀 한국말이 서툰 동포 2세 그리고 인도네시아 학생 등 우리 말과 문화를 배우고 싶은 이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 밀알한글학교다.

밀알한글학교

자카르타 인근 땅그랑에 위치한 한 한인교회의 교육관에 들어서자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라고 예문을 읽는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목소리가 찌렁찌렁하게 울렸다.

다문화가정 자녀와 어머니, 외국학교에 다녀 한국말이 서툰 동포 2세 그리고 인도네시아 학생 등 우리 말과 문화를 배우고 싶은 이들이 모이는 곳. 인도네시아 밀알한글학교(이하 밀알학교)

밀알학교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인도네시아지회(회장 배정옥) 한글전파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주말한글학교로 2006년 3월에 땅그랑 학교에 이어 그해 12월에 찌까랑과 자카르타 그리고 올해 3월에 땅그랑 찌꾸빠 학교가 차례로 개교했다.

처음에는 우리 말과 문화를 배우야 하는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와 어머니 그리고 외국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한류에 관심이 많은 현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대상이 확대됐다.

찌까랑 밀알학교 현지인 성인반을 지도하는 김석주 선생은 “한국 노래와 드라마 연예인을 잘 알고 있어 한류를 실감한다”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간단한 한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며 한국문화를 전파한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찌까랑 밀알학교는 현재 김석주 교사가 가르치는 성인교실 3개와 한은희 교사가 지도하는 어린이교실 1개 등 4개 교실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2시간씩 운영되고 있다.

땅그랑 밀알학교 인도네시아 성인반을 가르치는 김화경 교사는 “한글을 배워 언어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가정의 갈등이 해소될 때 보람을 느낀다”며 “학생들이 한글 공부에 열의가 대단하다”고 말했다.

밀알학교 교사들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계 다문화가정의 경우 아버지가 한국어를 안 쓰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이 한국어에 서툰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한국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다문화가정의 장점을 살리면 어린이들이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는 물론 영어 등 3개국어를 구사하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가교역할을 할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땅그랑 지역에서는 성인반 2개와 어린이반 1개가 역시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각각 2시간씩 운영되고 있으며, 현지인 여성을 위한 한국음식배우기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땅그랑 학교 어린이교실을 지도하고 있는 장은영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우리 문화와 정서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땅그랑 밀알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리스마(27) 씨는 “한글을 배워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미야(27) 씨는 “한국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어 한글을 배운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만 한국어를 구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다.

자카르타 밀알학교는 타지역과 달리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더라도 자카르타에 거주하면서 외국학교에 다니는 어린이가 대상이다.

강승은 교사는 “외국학교 다닐 경우 우리말 글쓰기는 물론 일상생활 언어도 정확히 구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며 “많은 어린이들이 밀알학교에서 한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강승은 교사가 지도하는 8~10세 교실과 유희정 교사가 지도하는 6~7세 교실이 매주 토요일 오전에 운영되고 있으며, 격주로 한글수업을 마친 후 송아름 교사의 지도로 동요배우기 시간을 갖고 있다.

유희정 교사는 “우리말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와 예절을 익힐 수 있게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3월부터 수업을 시작한 찌꾸빠 밀알한글학교는 강현영 교사의 지도로 성인교실과 어린이교실이 매주 목요일에 각각 2시간씩 열리고 있다.

밀알학교 교사들은 한국어 교원양성 프로그램 수료자들로, 한 달에 한 번 모여 교수법과 어려움을 나누며 교육방법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행정업무도 함께 맡고 있는 김석주 교사는 “현재 밀알학교는 각 교실의 특성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에서 발간한 교재와 한국학교의 교과서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현지에 맞는 교재 특히 어린이용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정옥 코원 회장은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교회에나 선교원 등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한글교육이 선교의 수단이라고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전용교실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코리아센터 1층 사무실을 사용하는 자카르타 밀알학교와 찌꾸빠 밀알학교 외에 다른 2개 지역의 학교들은 교회 시설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다.

교사들은 다문화가정의 장점을 살리면 어린이들이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는 물론 영어 등 3개국어를 구사하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가교역할을 할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데일리 코리아>

제3회 자카르타 학력경시대회 시행요강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에서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고교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2010학년도 제3회 자카르타 학력경시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고교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원서접수 : 2010년 5월 3일(월) ~ 5월 12일(수)
2. 접수처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행정실
3. 응시료 및 준비물 : 과목당 30만 Rp,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4. 시험일 및 시험시간

시험일		시간	비고
5.15 (토)	국어	08:30~10:00(90분)	시험시작 30분 전에 도착, 매 교시마다 시험 10분전 입실
	논술	10:40~12:40(120분)	
5.16 (일)	수학	08:30~10:30(120분)	
	영어	11:10~12:10(60분)	

5. 시험유형 및 출제범위

□ 국어경시대회

- 가) 출제영역 : 언어기초 영역, 언어기능 영역, 사고영역 평가
 나) 문항수 : 총 45문항
 다) 출제 범위 : 고교 전 교육과정
 라) 시험시간 및 배점
 - 시험시간 : 90 분
 - 배점 : 객관식 35문항, 주관식 10문항
 (주관식은 문항 당 3점이며 객관식은 문항 당 2점)

□ 논술경시대회

- 가) 출제영역 :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나) 문항수 : 일반 논술 1문항
 다) 출제 범위 : 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 범교과적인 주제를 선정한다.
 라) 시험시간 및 배점
 - 시험시간 : 120분이며 원고지 1600자 내외로 한다.
 (시험지와 답안지는 별도로 분리한다)
 - 배점 : 100점(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수학경시대회

- 가) 출제영역 : 계산능력, 이해능력, 적용능력, 문제해결능력
 나) 문항수 : 총 30문항(학교과정수준의 문제 25문제/ 경시대회용 문제 5문제)
 다) 출제 범위 : [수학10-가]전체, [수학]전체
 라) 시험시간 및 배점
 - 시험시간 : 120분
 - 배점 : 객관식 70%, 주관식 30%
 (각 문항당 배점이 다르며, 단답형 주관식 문제)

□ 영어경시대회

- 가) 출제영역 : 문법, 어휘, 독해
 나) 문항수 : 총 45문항(객관식)
 다) 출제 범위 : 영어 독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시사적인 지문과 고급 어휘 사용 및 정확한 문법을 체크할 수 있는 내용
 라) 시험시간 및 배점
 - 시험시간 : 60분
 - 배점 : 100점 만점으로 각 문항당 배점이 다름.

6. 응시 자격

- 고교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 국내, 외 대학 진학희망자
 - 한국 학교 및 외국계 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자(재외국민)

7. 수상자 발표일

: 2010년 6월 11일(금)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예정

8. 시상 내역

상명	인원	시상내역
대상	과목별 1명	상장 및 부상
최우수상	과목별 2명	"
우수상	과목별 3명	"
장려상	과목별 5명	"

9. 응시자 시상 및 특전

본 대회는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되는 전국 규모의 경시대회로 수상실적은 대학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 수상경력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받기 위한 자료 및 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수학 특기적 재능 보유 증빙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0. 응시자 유의 사항

- 수험표는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 감독관에게 반드시 신분증(여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11. 문의처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고등부 교무실(845-0455)

- 자세한 사항은 JIKS 홈페이지(<http://www.jik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주관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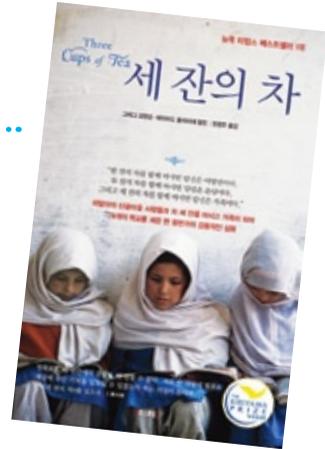
13 후원 :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KOTRA, KOICA, 재인니한인회, 재인니부인회, LG전자, 삼성전자,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대한항공, CJ, 코린도 그룹



김은미 편집위원의 추천 도서

세 잔의 차

저자 그레그 모텐슨, 데이비드 올리버 켈린 | 역자 권영주 | 출판사 이레



“한 잔의 차를 함께 마시면 당신은 이방인이다. 두 잔의 차를 함께 마시면 당신은 손님이다. 그리고 세 잔의 차를 함께 마시면 당신은 가족이다.”

이 책은 세 잔의 차를 함께 마신 후 파키스탄 오지의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 그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 꿈을 이루어낸 그레그 모텐슨의 이야기이다.

1993년 여동생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K2 등정에 올랐다가 조난을 당한 그를 파키스탄 오지에 있는 코르페 마을 사람들이 구조하게 되었다. 모텐슨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마을 사람들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기로 다짐한다.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는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를 짓는데 필요한 자재를 싣고 다시 마을을 찾는다. 일련의 실패와 뜻하지 않은 사고에 의해 산악인에서 박애사업가로 변신한 이래로, 그의 곁에는 뜻을 함께하는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추종자가 나타났다. 그 이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오지에 78 개의 학교가 지어졌고, 3만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 꿈같은 일이 벌어졌다.

가난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하지만 그 유일한 통로도 당신이 ‘가난하다면’ 굳게 닫혀 열리지

않는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가난은 대를 이어 전해지고 그로 인한 악순환도 계속된다.

사실 코르페 마을 사람들이 ‘학교’를 원했던 것은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함이라기 보다 정신적, 종교적 동기가 더 컸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을 읽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하지만 가난하여 배우지 못했기에 글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코란을 읽을 수 없었다.



이 이슬람교도들을 테러리스트와 동일하게 여기는 대다수의 미국인으로 인해 그레그 모텐슨은 경제적 이유 이외에도 술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의 태도가 미국을,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미국인들을 꺼려했던 파키스탄 오지 마을사람들 또한 그를 통해 마음을 열게 되었다.

이 책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세상이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다.

세간의 사람들은 말한다 - 나 혼자 아무리 바둥거리 보아야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문맹을 악용해 빈곤한 사회를 지배하는 폭군과 독재자를 이기는 것은 교육뿐이다.”라는 그의 신념이 많은 이들의 가슴에 파장을 일으키며 번져 나가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협의회 인도네시아 지회

주소: Korea Center Building,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전화: 021) 520 6655 / 팩스: 021) 520 3535

지회장: 김광현(asokapk88@gmail.com)

간사: 안선근(ali1212@centrin.net.id)

편집담당: 김문환(mhkasindo@cbn.net.id)

평통 칼럼

최대호/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인니지회 위원

평통위원, 무엇으로 사는가?

14기 평통위원으로 위촉된 지 벌써 10여 개월이 지나고 있다. 문득 군 복무시절이 생각난다. 철책과 민통선 안에서 대부분의 군복무기간을 보내는 우리 보병부대원들은 가끔 군복무기간이 짧은 우리들에게 너무 의미 없고 소비적이지 않느냐 하는 불평을 해대었다.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보다 더 큰 명분 위해 살아갈 기회가 있겠는가?” “하고 말이다.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큰 사명감을 지니고 살아가기에 후에 우리 자식들에게 두고두고 자랑스런 아버지로 남을 수 있다” 라고 말해주며 그 힘든 시기를 같이 극복해나갔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면서 취업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곳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해 생활하면서 사실 국가란 생각은 멀리하고 오직 내 가족, 내 직장에 모든 정열을 바쳐 살아 온 것 같다.

그러다 이렇게 평통위원이 된 후 몇몇 행사에 참여하고 평통 사무처에서 보내오는 소식지와 여러 가지 질의서에 회신을 보내면서도 사실 회의에 빠진 적이 있었다. 과연 평통위원으로 내게 요구되어진 책무인 “ 국가와 민족의 이익과 평화통일 실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을까 ? 하고 말이다. 그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수많은 평통위원들이 국내외 산재해 있는데 나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20대 초반의 군복무 시절 나를 버티게 해준 명분이 국가(남한) 였다면 이제는 그 범위가 남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포함된 그리고 우리 민족, 특히 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 통일 후 우리 민족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이루는데 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같이 더욱 커진 명분을 가지고 우리 평통위원들이 살아가야 할 것이다.

작금의 세계동향을 보면 세계 경제중심이 아시아권으로 옮겨오고 있고 아시아 내에서도 일본이 밀리면서 중국과 인도의 부상이 현저하다. 일본을 여러 면에서 이미 따라 잡고 있지만 이를 즐길 여유가 없다. 빠른 기세로 달려오는 중국을 생각한다면 두렵기만 한 것은 나만이 갖는 느낌은 아닐 것이다. 일본과 비교 안 되는 인구와 큰 땅덩어리가 주는 위압감과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는 한국을 보면 한국 내 정책입안자나 기업경영자들은 아마 편히 잠들 틈도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통일은 끊어진 핏줄을 잇는다는 민족적 과제 외에도 국가 경쟁력 제고측면에서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물론 어느 한쪽에 의한 일방적 통일이 아니라 한민족의 장래를 위한다는 대의명분하에 통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능한 한 빨리 준비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최종적인 안은 아니라 생각된다. 통일된 우리 자손이 세계 강국으로 살아 가자면 힘을 키우고 역량을 결집하는 그 범위가 한반도에 국한 될 것이 아니라 세계로 진출된 우리 민족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본다.

서울과 평양, 중국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 황해도 ‘해주’

황해도 해주는 서울과 평양의 중심에 있으며 서해안에 위치해 중국과도 가까운 지리적 요충지로 알려져 있다. 이승만, 김구, 안중근 선생 등 역사에 남을만한 인물들을 배출한 곳으로 유명해 일부에서는 통일 대한민국의 수도로 삼자는 이도 있다.

황해도 해주는 멸악산맥 줄기가 사해에 이르러 솟구침 수양산 자락에 바다를 바라보며 정남향으로 용이 올랐다는 용담포를 끼고 해주만 깊숙이 자리잡은 곳이다. 우리 현대사의 큰 인물인 이승만, 안중근, 장덕수 등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수륙 접근성이 뛰어나고 영종도 국제공항과도 근접하여 직선거리는 서울에서 천안이나 이천 정도의 거리 정도로 가까운 곳이다. 해주는 좋은 항구이고 중소 크기의 저수지가 산재해 있다. 해주의 서쪽 끝자락이 장산곶이고 용연(龍淵)이다. 용연은 한반도와 중국 산둥서의 위해(威海)을 연결하는 최단 지점이기도 하다.

해주 비빔밥

우리나라 최고의 비빔밥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전주 비빔밥을 최고로 치겠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 예로부터 해주, 전주, 진주 지역의 비빔밥을 서로 우위를 따질 수 없는 최고의 비빔밥이라고 한다. 그 중 하나인 해주비빔밥은 밥 위에 닭고기와 여러 가지 나물 등을 얹어서 만드는 비빔밥으로 바닷바람이 매서운 황해도 해주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해주 비빔밥은 해주 수양산에서 나는 고사리와 황해도 특산물인 감을 넣고 미리 돼지고기 기름에 볶은 밥을 소금으로 간을 한 뒤에 닭고기를 기본 고명으로 얹는 것이 다르다. 해주 비빔밥은 해주교반이라고도 한다. 비빔밥에 이처럼 기름기가 많아진 것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기 때문이라 한다.



이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외에 있는 평통위원들의 역할이며 앞날을 내다본 광의의 책무라 하겠다. 본인이 소속해 있는 인도네시아 평통위원 모두도 나와 같은 생각이라 믿고 싶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평통 사무처 및 본국위원회들의 관심을 촉구하며 수적인 확장보다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민주평통의 초당적, 범국민적 기구의 유지 및 확립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그리고 수많은 평통위원 중 한 명이지만 우리 인도네시아 평통위원 한 명 한 명이 우선 자신의 본업에 정성을 다하고 모범적 생활로 주위사람들로부터 존경 받고 이를 바탕으로 겸손히 평통위원의 역할과 책무를 사심 없이 행할 때 통일은 물론 조국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 강화 될 것이다.

민주평통 자문의 안내서에 따른 평통위원의 역할과 책무를 기술하면;

-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조성과 공감대 형성활동
-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북한 정세에 관한 이해 확산활동
- 자문 건의를 위한 통일여론 수렴활동
- 청소년 간담회, 토론회 등 통일 후계세대 육성활동
-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 문화사업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 국민 대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봉사활동 등이다

민족의 장래를 진정 고민하는 참된 민주평통과 평통위원이 되길 함께 노력합시다.

언론이 본 평통



북 급변사태와 안정 모두 대비해야

민주평통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남북정상회담 대토론회’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과 체제 안정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미증유의 사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며 “화폐개혁 초기에 긍정적 성과가 나타났지만 북한 당국이 버텨낼 수 있다고 설정한 기간이 소진된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중국의 지원이 쉽지 않고 한국의 지원 가능성도 희박할 경우 이판사판식으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대북 정책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부가 북한의 불안정성에 지나친 기대를 했다가 오히려 북한의 안정성이 강화된다면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며 “정부가 주관적 기대에 매몰되는 것은 정책 실패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 특보는 기초연설에서 “앞으로 있을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기본합의서와 6.15, 10.4 공동선언을 포용하면서도 그것을 뛰어 넘어 남북이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나가는 모습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최형문 기자 chm@mbc.co.kr





행복한 아이 만들기
프 · 로 ·젝 · 트

글:이진순

행복한 아이의 비밀 5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

만약 사람들이 언제나 행복하기만 하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 역시 내 행복하기만 하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나 행복하다면 사실 너무 지루하겠지요? 부모들이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느끼게 될 온갖 감정들을 잘 다루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우리들은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아직도 '남자는 울지 않는다' 라든가 '화를 벌컥 내는 건 숙녀답지 못하다' 등의 통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 한두 가지만 제대로 이해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이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일 때 경험하는, 독특하게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 혹은 기분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아주 미약한 것에서부터 매우 강하게 느껴지는 것까지 감정의 농도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감정으로는 분노, 두려움, 슬픔, 기쁨을 들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감정들은 이 네 가지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섞인 것일 뿐입니다. 마치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색이 섞여서 갖가지 빛깔들이 나오듯이 말이지요. 질투의 경우를 보면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고, 그리움의 경우에는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느끼며 사는 우리 인간은 정말 놀라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갓난아기 때는 감정이 막 형태를 갖추어가는 시기입니다. 아기들은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느낌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떨림, 슬픔의 눈물, 화가 나서 새빨간 얼굴, 기쁨에 찬 의기양양한 웃음..... 아기들은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마구 발산시켜서 좋지 않은 감정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자란 아이들은 감정이나 느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배워야 하며,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강한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도 부모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다행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감정을 갖고 있는지,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또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아이와 함께돼 이해하생활로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때로 우리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느꼈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큰 고통을 안겨주는 분노라든가 슬픔 같은 감정들이 그렇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격렬해하감정들을 갖게 만들었을까요? 감정들 속에는 각기 맡은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지요.

분노에 대해

아이들은 화가 나면 즉각 공격적이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든 그걸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 일에 끼어드는 것

은, 아이들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것인지를 배워 어른이 되어서도 그것을 잘 활용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른으로서 분노를 처리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균형입니다. 만약 아이가 화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 무기력해 보이기 쉬우며, 다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 받거나 이용당하게 됩니다. 화를 너무 자주 내면 인기가 없거나 괴롭힘을 당하게 되지요.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을 아이들이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기는 두세 살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서 수년 동안 연습하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분노라는 감정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들이 화를 낼 때 행동보다는 말로 표현하도록 유도하십시오. 아이들은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것, 가능하면 그 이유까지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아이들이 자신의 느낌과 왜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지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모와 함께 이야기하며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뭐가 잘못되었는지 ‘돌이켜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영이가 네 트럭을 갖고 가서 화가 난 거니?”

“내가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짜증난 거니?”

아이들은 공격적인 행동 대신 뭐가 왜 잘못되었는지 곧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3. 아이들이 느끼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는 것, 그리고 부모인 당신이 그 느낌을 받아들였다는 것, 그러나 항상 아이들 뜻대로 일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주시킵니다.

“네가 엄마 때문에 화가 날 만도 하구나. 내가 네 얘기를 제대로 안 들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듣고 있단다.”

“네가 이 가게에서 기다리느라 지쳐 있다는 거 알아. 엄마도 지쳐 있어. 그렇지만 물건을 고르고 산다는 게 원래 그렇단다. 남동생을 괴롭히지 않고도 네 기분이 좋아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4. 아무리 화가 나도 누군가를 때리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십시오. 아이가 폭력적이 될 때마다

바로바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처음부터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일러주어야 합니다. 쿵쿵 쥐어박기보다는 더더욱 말로 하셔야 되겠지요!

5.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 자주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이 긍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태인이가 때려요.”

“태인에게서 그러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렴.”

“세영이가 제 자전거 가져갔어요.”

“개한테 가서 지금 돌려달라고 해. 세영이한테 자전거는 네 것이니 돌려받고 싶다고 말하면 돼.”

6. 먼저 시범을 보이십시오. 아이들은 우리의 행동을 따라하지, 말로 시킨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화가 나도 참고 참다가 끝까지 참지도 못하고 쌓인 상태 그대로 폭발시키지 말고 아예 처음에 크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화’가 나면, 화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화’란 감정이 표현될 수 있는 것이며, 일단 표현하고 나면 풀린다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쉬운 말로 하십시오.

“엄마 화났어.”

“네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방해하지 마.”

“우리가 한 약속을 내가 안 지켜서 속상하구나. 어떻게 된 거니?” 이 분노의 감정은 항상 다정하고 사리에 밝으며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부모보다는 감정을 적당히 표현할 줄 아는 부모에게서 훨씬 잘 배웁니다. 부모도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확대하거나 기를 꺾지 않고서도 화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화를 적절하게 표출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들이 스스로를 조절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즉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때리

지 않고 참는 것을 보게 될 때, 혹은 큰 소리로 “나 화났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지금껏 애쓴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 중에도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여러분의 아이는 진도가 꽤 빠른 셈이지요.

슬픔에 대해

가끔씩 우는 것은 숨쉬기만큼이나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입니다. 울지 않는다고 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초조해질 뿐입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면 울어버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울 줄 알고 슬픔을 풀어낼 줄도 안다면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사람이 상실로 인한 심한 고통으로 울게 되면, 그 사람의 몸에서 엔돌핀의 일종인 화학물질이 분비되어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감각기관을 차단하고, 또 고통을 치유하는 마취성분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눈물 속에도 있는데 모르핀만큼이나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슬픔이라는 감정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해심을 갖고 아이들을 도와준다면, 슬픔은 일련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감정이 됩니다. 아이들이 울 때에는 옆에서 함께 있어주면서 침착함을 지키면 됩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안기고 싶어 할 때 꼭 껴안아주거나,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혼자만의 시간을 주면 되는 거지요.

“울어도 괜찮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말 슬프겠구나.”

“나도 슬프단다.” 등 울어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아이가 혼란스러워하거나 난처해하는 경우라면 조금 설명을 해주어도 좋겠지요.

“지민이는 너랑 정말 친했잖니. 지민이가 이사 가서 네가 슬퍼하는 건 당연한 거야.”

두려움에 대해

두려움은 사실 모두에게 필요한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어린이가 위험에 뛰어들지 않도록 해주는 무척 중요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빠르게 달려오는 자동차나, 방향을 바꾸어 달려오는 자전거를 피하는 것 역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한적한 주

택가에서 지나치게 친한 척하는 낯선 사람이나 이상하게 행동하는 이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요.

두려움의 이면을 보자면, 너무 무서워하는 것은 심각한 약점이 됩니다. 아이들은 어른에게 말을 걸 수 있어야 하고, 학교에서 발표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것을 요구할 줄 알며, 남들과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조심만 한다면, 세상은 기본적으로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이 스포츠나 친구 사귀기, 창의력 등에 관해 새로운 것을 시도해볼 수 있을 만큼 용감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가르치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숲길에서 몸을 곧추세운 뱀을 만나면 당장 몽상과 부주의함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를 활력 있게 합니다. 우리를 더 빨리 달리게 하고 높은 장애물을 뛰어넘게도 만듭니다. 아이들이 두려움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생각하기’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처하는 기본 요령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철저하게 사실적이 될 것.

서너 살짜리 아이들은 종종 자신을 둘러싼 넓은 세상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네 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온갖 걱정을 합니다. 아이들과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 하되 인내심을 갖고 편안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들과 러나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의 직관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아이들의 경계심은 가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할 때가 있으니까요. 두려움은 일종의 레이더이며, 인류가 오랜 옛날부터 이런저런 위험을 잘 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2. 두려움에 관해 이야기할 것.

아이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나 일어나지는 않을 일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을 설명해주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즉 다시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십시오.

3. 아이가 비현실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

동화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는 한, 아이의 침대 밑에 있는 괴물을 찾기 위해 야단법석을 떨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4. 두려움의 원인을 파악할 것.

아이가 계속 두려워할 때,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귀를 기울여보십시오. 아이가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아이를 두렵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인한 두려움이 얹힌 경우 실마리를 풀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은 과거의 것과는 다릅니다. 개인적인 생활이 팽배한 대도시에서 잘 지내기 위해 일종의 '방어적 행동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린이에게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슬픈 일이지만 어린이들이 직면한 가장 일반적인 위험은 아동 성희롱이며, 가해자는 아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적 행동훈련으로 두 가지 규칙을 가르칩니다. '뭔가 잘못되었거나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느꼈을 때 반드시 누군가에게 얘기해야 한다'는 것과 '너는 항상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과 후 집에 왔는데 문이 잠겨 있고 집에 아무도 없거나, 버스를 잘못 탔을 경우 등입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는 별로 없는 경우입니다만, 한국에서는 많이 발생하는 경우이지요. 혹은 부모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습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등입니다.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들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은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위험한 일이 터졌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짜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하고 아이들이 물어보면 대답해주거나, 혹은 반대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이 위험에 대비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지요.

분노는 우리 자신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게 없으면 우리는 노예가 되거나 겁쟁이 생쥐로 살아가게 됩니다. 분노는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본능입니다. 두려움 역시 뚜렷한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호등을 지켜가며 운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은 지나치게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제어해줍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신중하게 하고, 멈추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를 때 우리의 두뇌로 하여금 그것을 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슬픔은 우리를 비탄에 잠기게 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즉 우리가 인생에서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잃었을 때 오는 스트레스를 글자 그대로 씻어내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슬픔으로 인해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은 머릿속의 고통을 없애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슬픔만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떠나보내게'하고, 새로운 인생 혹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세 가지 감정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감정인 기쁨은 위의 필요조건(자유, 안전, 만남)이 어느 정도 충족된 다음에야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어른들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분노, 슬픔, 두려움)에 대해 잘 인식하고 제대로 다룬다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또한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감정은 직감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우선 부모 혹은 양육자가 정리된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아이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발산하면서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차근차근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일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찾는다면 그 기쁨이 더욱 샘솟게 되겠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감정'이라는 선물로 아이들과 함께 기쁨으로 한발 더 다가가는 삶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이 전 순

이전순 씨는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와 대학원을 졸업(아동상담 전공)하고 동 대학원과 청주대학교에서 음악치료학과와 음악치료전문가 과정 등을 수료하고 아동 및 정신지체자, 노인들의 심리치료 및 상담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지는, 화우시절 花雨時節

유촌강 / 소설가, 카피라이터

어 있고, 대문 입구에 산수국이 수줍게 피어 있는 정원 또한 기쁨이 있다.

선생님은 <밭리에서 생긴 일>에 주인공으로 나온 조인성에 필이 꽃치셨을 정도로 여전히 새침한 소녀의 감수성이 충만하신 분답게, 정원도 그러하다. 이름 하여 <구수의 정원>이라 할만하다.

셋째딸, 지현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셋째 딸이라고 설움(?) 준 할아버지 보란 듯이 서울대가라며 덕담(?) 해주신 선생님은 여전히 딸들의 안부를 물으신다.

중종 재희 선생님의 가야금과 우 선생님의 단소가락이 봄 풍경에 더해지면 다들 봄에 취하곤 했는데 사시사철 더운 이곳에 있어선지 그 알싸한 봄과 정원이 그러합니다.

아파트에 살면 잘 가꾸진 조정 탓에 사철 꽃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공공의 꽃’이란 인식이 강해선지 나만의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래선지 애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정원이 있는 집을 꿈꾼다. 큰 애는 종종 주택으로 이사 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듯하다. 재산 가치를 떠나서, 게으른 탓에 그러하다. 찔레꽃이 하얗게 피고, 라일락향이 공중을 떠돌며, 물가에 한련화와 옥잠화가 피고, 돌 틈엔 원추리, 채송화, 봉선화, 그리고 백일홍이 피는 그런 정원은 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구는 그런다. 꽃들이 집안에 있는데 무슨 꽃타령이냐고. 하지만 그건 모르는 말씀이다. 그 꽃들은 너무나 손이 가는 꽃들이라 이만저만 키우는 공이 드는 게 아니다. 그 꽃들을 보고 싶노라면 나의 꽃 같았던 시절은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종 한숨이 나온다. 물론 그것 또한 자연의 질서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섭섭하기는 매일반이다. 그럴 때 나는 생각한다. 예전에 나의 할머니 김 부용 여사께서 하신 말씀을.

꽃 같은 시절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멀찌감치 떨어져서 꽃을 구경하는 기분도 솔솔 하다는 그 말씀을. 나는 그걸 지금 알아가는 중이다. 내게도 꽃 같은 시절이 있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꽃을 감상해야 하는 시기라는 걸.....

내가 나이가 들긴 들었나보다. 장미라면 백이 가던 시절은 가뭇게 있고, 이젠 작은 꽃들에 관심이 가는 걸 보면 말이다. 노란 혹은 하얀 냉이 꽃이 봄 햇살 아래 피어 있는 걸 우습게 알았던 적이 있는데, 이젠 그것조차도 이쁘다.

수수하다는 단어에 별 매력을 못 느끼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젠 그 단어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됐다. 아름답되 격하게 화려하지 않은 그 무엇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나름 정의를 내렸다.

검손해선지 고개 숙인 채 보랏빛 꽃을 피우는 제비꽃, 조신하게 흰 꽃잎을 봄바람에 날리는 짙레, 낮보다는 밤에 더 화려한 벚꽃이 모두 꽃의 시절, 봄을 수수한 자세로 지키는 꽃들이다. 뽕에서 본 딸기 꽃은 또 어떨까. 회고 여린 꽃이지만 충분히 아름다웠다. 그 꽃이 아름답다고 느낀 것은 꽃이 지고 맷힐 빨간 열매 때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작은 꽃들에 대한 나의 예찬은 끝이 없다. 짙은 보라 혹은 자색의 큼직한 꽃을 피우는 이곳의 나팔꽃과는 달리 수수깡으로 역은 담을 타고 오르는 분홍이되, 하얀색을 품은 토종 나팔꽃은 아주 오래 전 기억, 할머니가 있는 풍경을 떠올리는 상징물이 되어버렸다. 그 기억 속에는 하얀 강낭콩 꽃이 피기도 하고, 연보라 빛 가지꽃이며, 들깨 꽃들이 바람에 날린다.

서울의 우 선생님과 통화를 했다. 당진의 훑날리는 벚꽃과 자두꽃은 아직 이지만 제법 봄물이 오르고 있는 중이란단. 자연을 향해 탁 트인 당진의 정원에 산자락을 따라 곱취가 순을 내밀고 있을 것이고, 입구의 빛나무는 꽃망울을 화려하게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게다. 딸이 늘 팝콘을 튀겨서 매달아 놓은 것 같다고 말한 빛나무는 여전히 마님의 자태를 자랑할 게 분명하다.

정말 그리운 풍경이다.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고, 사방으로 막힘이 없어서 자연과 닿아 있는 그곳은 우 선생님 부부처럼 자유롭고, 넉넉해 <자연주의자의 정원>이라 할만하다. 해마다 사월에서 오월로 넘어가는 즈음에 꽃이 한창이라 그곳을 아이들과 찾곤 했는데, 벌써 2년째 <당진기행> 속의 그 봄을 잊고 산다.

박 선생님의 정원은 우 선생님의 정원과는 많이 다르다. 워커힐 뒤편 아치울 산자락에 자리한 그분의 낙원은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있다. 동그란 창으로 보는 한강의 풍경도 아름답지만 진달래가 피고, 이름도 알 수 없는 꽃들이 돌계단 사이사이에 피





빠뿌아 섬 이야기



김성월

수필가 · 방송 프리랜서
hansol0508@hanmail.net

* 다니죽을 만나러 가던 첫날

“저 한국에서 온 피디분이죠?”

“네, 김성월선생님입니까?”

“네, 맞아요.”

우리는 서로 악수를 나눈 후 가방은 운전기사에게 받으라하고 공항을 나와 차에 올라탔다. 차안에서 피디는 말했다.

“사실 아까 봤는데 이렇게 젊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요. 전화통화 음성으로는 짧고 꼬불한 파마머리, 튜리닝 걸쳐 입어 엉덩이 평퍼짐한 그야말로 아줌만줄 상상했거든요.”

그런 소리를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도 새삼스럽지 않았다.

“제 목소리가 원래 노인 같아 만난 적 없는 분들과 통화하면 어른대접 많이 받습니다.”

피디는 말을 계속이었다.

“.....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어 정로환이랑 신경통약까지 챙겨왔어요.”

‘신경통약’ 까지 챙겨왔다는 말에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와 “왜 지팡이도 하나 가져오지 그랬어요.”

이동 중 도로에 전복된 트럭을 보고서 피디가 하는 말 “에헤 저 차 뒤비져가 동태(바퀴)가 하늘보고 뱅뱅 돌아가네. 저래가 어야노”

피디는 경상도사투리가 어찌나 심한지 대화를 나누면 문득 고향의 오촌 아저씨들이 떠올랐다. 좁쌀영감처럼 자상하고 재미있는 피디덕분에 파푸아섬의 원시인들을 만나러 가는 10일 동안 무섭거나 지루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는 곳은 인도네시아 섬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큰 섬 파푸아(PAPUA). 이곳은 자바 섬과는 두 시간 시차를 두며 한국과 시간이 같다.

수라바야(Surabaya)에서 저녁을 먹었다. 백수식당

와메나 공항은 정겨워요





아주머니가 오지에 가면 먹을 것이 없다며 고추장을 짬뽕 포장해 주셨다.

밤11시경 출발하여 파푸아(Papua)섬의 중심도시 자야뿌라의 선따니(Sentani)에서 도착하니 다음날 아침8시였다. 그곳에서 조그마한 비행기를 타고 한 시간 더 동쪽으로 가야한다. 보딩패스는 색깔로 구분되었고 탑승 시간이 되자 “와메나(wamena)로 가는 빨간색 보딩패스 승객들은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방송했다. 비행기 조정실 안에는 모르겠고 남자 승무원 1명과 승객 17명만 탈 수 있는 작은 비행기였다. 좌석도 시내버스처럼 마음대로 앉으면 된다.

와메나공항에도착했다.아니,인터넷으로만 보던 꼬테카(koteka)차림의 할아버지도 보았다. 신기해서 할아버지를 자꾸 쳐다봤더니 나를 따라와서 무서웠다. 우리도시에서 흘러당 벗고 다니던 늙은 거지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나에게는 신기하기만 하다. 맨 처음 자카르타 도착했을 때 그 기분이 바로 지금 이 기분과 같다.

나는 지금 와메나의 한호텔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된 과정이 떠오른다.

일주일 전, 파푸아로 함께 가 줄 수 있냐며 부탁을 받았을 때 나는 입원 중이었다. 늘 가보고 싶던 곳이라 망설임 없이 승낙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위험(?)하다며 가지 말라고 말했다.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 찍으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한다고 했다. 그런 일이야 플로레스 고래잡이 마을에서 이미 겪었는데 뭐, 아직도 숲속에는 식인종도 있다는데 그건 가봐야 아는 것이고. 다만 두려웠던 것은 물리면 적어도 3개월 고생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말라리아모기들이 극성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입원중이니 말라리아 예방약은 병원에서 먹으면 되고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었다. 아무튼 오지중의 오지, 나는 빨리 가고 싶어 가슴이 설레기까지 했다. 그곳 채널을 알아보는데 마침 U 다니는 딸아이 친구아빠가 그곳에서 군 지휘관으로 근무하다가 한 달 전 자카르타로 발령받았다는데 엄마가 그곳에 가면 부하직원을 소개시켜 주면 그 부하가 도와 줄 것이라고 딸아이가 전해왔다. 그럼 됐다, 됐어!

정오 때 조금 후에 오겠다고던 사람이 저녁 7시경 호텔에 도착했다. 그분은 그곳 부군수님이였다. 와메나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국법도 중요하지만 풍습법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외부인들이 잘못하였을 경우 원주민들의 요구대로 국법보다 훨씬 무거운 풍습법을 따라야하고 또 국법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군수님 차가 횡단하는 암퇘지를 치어 죽였는데 원주민들은 암퇘지 젓꼭지 하나에 얼마,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군수님은 돼지 한 마리 값으로 천만(1000\$)루피아를 지불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이곳은 위험하다며 촬영기간 동안 군직원과 차량제공 그 외의 것까지 지원해 주셨다, 와메나 곳곳에는 군인들과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순탄했다.

와메나의 모든 물자들은 항공으로 운송된다. 인도네시아에서 3번째로 카르고 물량이 많고 물가는 비쌌다. 경유가 리터당 이만 루피아였고 시멘트 한 포대 가격이 무려 100\$로 가장 비쌌으며 담배는 자바섬의 가격과 동일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외국(네덜란드, 미국, 독일,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어 곳곳마다 교회가 서 있었고 대부분의 그리스 찬들이었다.

와메나의기온은아주선선한가을날씨였다.노랑코스모스들이 잔뜩 피어 있었고 호텔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밤바람이 나에게 싸늘하게 느껴졌다.

수로바(Suroba)마을과 소금물(Air garam)

인도네시아 동쪽, 파푸아 섬에는 약 250여 부족들이 살고 있다. 그곳에는 라니족, 다니족, 툴리가리족이 살고 있다. 와메나에서 차타고 한 시간 정도 가서 또 숲속으로 한 시간 정도 걸어 수로바 주민들을 만나러 갔다. 수로바마을은 너무 산속이라 아직도 문명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그늘진 곳이었다. 마을로 들어서면 입구에는 전봇대 높이의 망루(삐곤까요pikon kayo)가 세워져 있었다. 다른 부족들의 침입을 감시하고 침입자가 있으면 피리를 불어 부족들에게 알리는 곳이라고 한다.

나약(Nayak)이라고 한다. 그 말은 좋다. 반갑다. 축하한다.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들은 즐거울 때 '와 와'라고 소리 질렀다.

마을 기슭에는 돼지 한 마리가 모래 속의 지렁이들을 파먹고 있었다. 마을에 들어섰다. 모든 집들이 초가지붕처럼 되어 있었고 그들은 집이라고 부르지 않고 호나이(Honai)라 불렀다. 호나이 안에는 어두컴컴했다. 호롱불도 없고 둥그런 화덕에 화롯불 같은 불을 피우면서 온기를 데워내고 있으니 천정으로 만들어진 서까래에는 그늘음이 반들반들 빛이나고 있었다. 그들이 잠자는 바닥은 부드러운 갈대들이 깔려 있었고 밤에는 가마니때기 같은 것으로 덮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잠을 자곤 했다. 마굿간이라고 표현을 빌린다면 그들에게 비인간적인 표현일지 모르나 적어도 내 보기엔 그랬다.

수로바 사람들은 숙식마저 공동생활하고 있었다. 그들의 집(HONAI)은 남자들만 자는 곳 여자들만 자는 곳이 분리되어 있었다. 만약에 부부가 함께 자려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자야하는 불편함, 둘만의 장소는 다른 집이나

그곳을 지나면 강물에 놓인 통나무다리를 두 번 건너야 한다. 강물의 깊이는 5미터를 넘고 황토색 물이 차가운 온도로 흐른다. 내가 갔을 때 우기라서 물이 차올라 통나무위로 물이 찰랑거렸다. 신발과 양말을 벗어 쥐고 맨발로 걸어가니 발이 너무 시리다 못해 강을 다 건널 무렵 감각을 잃는 듯해서 기슭에 빠졌다. 통나무다리는 가느다란 신(sin)나무 하나를 길게 연결해 뒀으며 마을에는 신나무들이 빼곡하게 심어져 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공동재산이기도 하다. 다리를 건너서 다니족 중 수로바 주민들을 만났다.

아니면 들판이라고 했다. 그들은 우리가 건너던 황토색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고 남자들이 떠온 물은 남자들만 마시고 여자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다. 희한하게 여자들이 떠온 물은 남자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남성우월주의, 일부다처제였고 족장은 열 명의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정말 기이한 차림! 남자들은 모두 꼬떼까(koteka)를 하고 있었고 여자들은 살리(SALI) 치마를 입고 있었다. 산속에서 이런 모습의 사람들을 만나다니 다른 세상에서 온 느낌이 아니, 옛날시대로 들어가서 혼돈스러웠다. 그 부족들이 나누는 인사말이 있었다. 악수를 하면서 여자들은 상대방에게 라옥(Lauk)이라고 하고 남자들은

그들은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슬픔을 함께 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손가락이나 귀를 조금씩 잘랐다. 그것도 돌로 자신의 손가락을 내리쳤다. 먼저 죽는 자들이 살아 있는 자들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을 남겨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뭇 들었다. 손가락과 귀를 잘라버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을 보면서 나는 그들의 문화가 참으로 섬뜩하게 느껴졌다. 요즘은 교회나 성당에서 사람이 죽어도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풍습을 가진 그들을 설득하여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여 뼈를 가루로 만든다. 그 뼈가루를 담 위에 뿌리면 죽은 이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재앙을 막아주고 집안의 평안을 지켜주며 또 밭에 뿌리면 밭농사가 풍년을 이룬다는 그들만의 미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밥 대신 고구마가 주식이고 반찬으로 야채나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가난하게 살아간다. 소금 살 돈이 없어 산꼭대기에 있는 소금물에 바나나 줄기를 담갔다가 어느 정도 절여지면 집으로 가져가서 음식 만들 때 소금대용으로 넣어 간을 맞춘다고 했다. 우리는 두 아낙네와 산꼭대기에 있다는 소금물로 향했다. 길이 없는 가파른 산비탈이 길이었다, 바위를 밟고 도랑물에 침병거리기도 하다가 높에 발목이 잠겨 허우적거리기도 했다. 길은 원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다니면서 길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 길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라가면 갈수록 산이 높아 삼림욕이고 뛰고 매미 소리는 귀에 거슬리고 나는 호흡이 빨라지며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한편 수로바 여인들은 바나나 줄기를 뒷짐 지고 여유롭게 맨발로 잘도 갔지만 나는 내 작은 가방마저 일행에게 건네주고 빈 몸으로도 길길 거리며 올라갔다. 보다 못해 그 여인 중 하나가 여러 번 손을 내밀어 주다가 숲 속으로 들어가더니 나를 위해 지팡이 하나를 만들어줬다. 산 중턱쯤 올라갔을 무렵 비가 내렸다. 마침 계곡을 건너야하는데 지붕이 덮인 나무다리가 하나 있었다. 잠시 소나기를 피했다. 다리에서 비를 피하는 동안도 수로바의 여인들은 결혼하면 담배를 피울 수 있다며 나보다 나이가 절반은 어려 보였는데 담배를 줄곧 피워냈다. 그들의 유일한 기호품이 담배를 즐겨 피우는 것이었고 집 앞에 담배 몇 포기가 심어져 있었다.

일담배를 말아 피우는 그들에게 피디가 담배 한 개비를 건네주니 아주 행복한듯이 피웠다. 와메나사람들에게는 식당의 볶음밥 한 그릇 값이면 담배 서너 갑은 거뜰히 살 수 있었다. 그래서인가 그곳에는 담배연기가 자욱하게 있었다.

산 중턱을 지나니 계곡물이 흘러가고 그 옆 작은 웅덩이에 소금물이 고여 있었다. 소금물은 보이지 않게 흘러나오고 흘러가고 있었다. 가져 온 바나나줄기를 두 여인이 부드럽게 하여 소금물에 담가두었다. 절여지는 동안 나는 물을 맛보았다. 정말 짠맛이다. 조금 후 뻣뻣하던 바나나 줄기가 삶은 토란줄기처럼 흐느적거렸고 간이 딱 맞았다. 나는 그들에게 물을 떠가서 사용하면 더 좋을 것인데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지 물었더니 조상대로 내려오는 것이기에 물을 떠가면 안 되고 웅덩이 위쪽에 물이 흘러나오는 곳을 밟고 지나가게 되면 재앙을 겪을 수가 있다며 그들은 철썩 같이 믿고 있었다.

소나기를 맞았고 땀이 범벅이 됐으니 내 꼬락서니는 생쥐 꼴이다. 그런데 피디는 소금물 맛을 보고 인터뷰를 하라고 한다. 머리카락 좀 다듬고 화장을 고쳐 하자니 그런 물골로 하는 것이 생생한 장면으로 더 좋다며 자꾸 카메라를 들이댔다. 그래, 까짓 것 시청률이 잘 나온다면 내 이미지를 이 정도로는 구겨 줄 수도 있지!

* 피푸아섬 이야기는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재 인니 한국 봉제 협의회

KOREA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IN INDONESIA

재 인니 한국 봉제협의회 회장 배도운
사무총장 이병수

KOGA 2010년판 주소록 책자 개정편찬 안내

지난 2007년도에 제작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주소록의 실용적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오는 5월말까지 개정판을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대상업체는 KOGA 회원사에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의류 제조 또는 무역업체 및 유관 협력업체(원단, 자수, 인쇄, 워싱, 염색, 재봉사, Packing 자재, 의류약세서리, 봉제관련 기계 등)를 포함합니다. 회원사로 신규가입을 원하시거나 기존 주소록의 내용(회사명, 대표자, 전화번호, e-mail주소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회사는 아래의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 주소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회원사로서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도 사소한 변경사항이라도 있는 회사는 반드시 작성하여 보내주셔야 하며,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가끔씩 다시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정확하고 유용한 주소록 제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소록 등록을 신청하신 회사는 모두 회원사 자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연회비 납부(일백만루피아)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소록 개정판은 연회비를 납부한 회사에 한하여 2부씩 배포할 예정임을 헤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하기 양식에 의거 작성한 주소록을 사무총장(이병수)에게 가급적 e-mail로, 또는 팩스로 송부
e-mail: hatibaru@naver.com Fax: 021-8379-0748 / 8379-0743

2. 신청기한: 2010년 4월15일 한(4월 20일부터 인쇄작업이 시작되므로 기한 엄수 요망!)

3. 작성시 유의사항

- 1) 회사명은 알파벳 Full Name을 기재
- 2) 대표자 영문명은 이름 이니셜을 앞으로 하고 성을 뒤로 기재
- 3) 대표자는 해외법인일 경우 인도네시아에 상주하는 대표임원 및 현지직책(법인장, 전무이사 등)을 기재
- 4) E-mail 주소는 대표자의 개인메일 및(또는) 회사대표메일주소를 기재 ~~이~~ 가장 중요한 기재항목!
- 5) 한국인수는 대표자를 포함하며 중국교포가 있을시는 괄호안에 별도로 인원수를 기재

4. KOGA 연회비 송금구좌

A/C Holder : Chung Chul Ju (정철주 회계담당 부회장)

하나은행: Hana Bank, KCP Lippo Cikarang. A/C: 016.03.11.00258.7

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Cikarang. A/C: 2211003497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Lippo Cikarang. A/C: DDA932000637

반드시 하기 양식 그대로 MS-Excel File로 작성하여 주세요!!!

회사명	대표자	주생산품목	회사주소/대표자 E-MAIL	TEL/FAX/HP	한국인수	근로자수	설립년도
BUSANA PALING BAGUS	G.D. HONG	Aneka Baju (Knit, Woven)	Jl. Desa Cinangka Rt. 05, Rw. 03, Cinangka, Bungursari,	T : 0264 838 7325	5 (중국교포 2)	1,200	2006
	홍길동		Purwakarta, Jawa Barat	F : 0264 318 588			
	사장		E-mail : hatibaru@naver.com	Hp : 0816 181 3615			



바하사



4월

글: 허영순 번역작가(KBS WORLD INDONESIA/OKTN)
 자료제공: KBS WORLD INDONESIA/KORINDO.

삶의 기준은 각자 정하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문명이 발달 하면서 사람들은 더 간편하고 실용적인걸 찾게 됩니다. 세상에 진정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편협적이지 모르지만 많은 이들이 돈을 위해 일 하는 것 같습니다. 남의 이목이나, 돈을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듯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취업 대란 이라고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일꾼을 찾지 못해 고전 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밑 바닥에서부터 일하고 고생을 즐기는 그런 풍토는 없어진 지 오래 입니다.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힘든 일은 기피하게 되고, 모두의 꿈이 단일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특수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사회는 점점 힘들어 지고 그 사회 구성원들도 힘들어 지는 듯 합니다.

해외 거주 하고 있는 우리 같은 재외 동포들도 모이면 다들 한국의 정치, 경제에 열을 올리며 얘기 합니다. 그 만큼 내 나라를 조국을 사랑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본인이 가장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 보기 힘들습니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고 싶기 때문에 노력해서 긍정의 힘을 갖는 게 아닌 정말 행복해서 갖는 긍정의 힘을 우리도 가졌으면 합니다.

공자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라고 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일을 즐기고 계신가요? 저도 스스로에 묻고 있습니다.

새 일일 드라마 바람불어 좋은 날은 국민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용기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드라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고등학교도 졸업 하지 못했지만... 꿈을 갖고 서울로 상경한 오복이는 남들이 보면 파란만장한 삶이라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일, 잘 하는 일 즉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로 인생의 승부를 겁니다.

힘들다고 남과 비교 하면 낙담 하기 보다는 본인의 인생을 찾아가는 도전 드라마. 열심히 즐겨 일하는 사람이 성공 하듯 주인공 오복 이도 성공을 향해 한 발 한 발 달려 갑니다. 그래서 인생 굵이 굵이 어려움은 있지만, 꿈을 찾아달려 가고 그 꿈을 이뤄 아름다운 삶을 사는 주인공의 삶을 표현 하기 위해 제목을 Manisnya Hidup (달콤한 인생)으로 정했습니다.



바람 불어 좋은 날 (Manisnya Hidup)

바람둥이 재벌 2세 상준은 다른 여자들과 다르게 장정남의 고명딸 만세에게 푹 빠지고 만다. 그 마음을 친구에게 고백하고 친구는 드디어 입자 만났다면



Gadis itu, pasti **menaklukkan** hatimu (Mencuri hatimu)

그 아가씨가 네 마음을 확 잡았네.

Menaklukkan 어근은 **takluk**(정복)으로 angkat tangan (항복하다), Tunduk(숙이다, 항복하다, 복종하다), bertekuk lutut (무릎을 꿇다, 복종하다)와 유사하게 사용됩니다. 한국어로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표현 할때 “마음을 빼앗기다” “정복(저항 할 수 없게 만드는 일) 당하다” 라고 합니다. 바람 둥이지만 거부 할 수 없는 힘에 의해 마음을 빼앗겨 버린 뜻을 나타 낼때 Mencuri hati (마음을 훔치다) 보다 강한 의미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이 문맥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

예)

Dokter sudah **angkat tangan** terhadap penyakit yang diderita pasiennya.

의사는 환자의 병을(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포기 했다.

Semua orang **tunduk** pada sang pahlawan kemerdekaan.

모든 이들이 독립영웅에게 고개 숙였다. (목념, 경의를 표하였다)

Akhirnya anak nakal itu, **bertekuk lutut** kepada orang tuanya.

말썽장이 아이는 결국 부모님께 무릎 꿇었다.(항복(복종) 하였다)



수상한 삼형제 (Keluarga Aneh)

처음 시집 올때 온갖 거짓말로 건강의 가족을 홀린 청년 하나씩 베일을 벗으면서 시어머니께 또 가족들에게 구박당으로 전락 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 진 빛도 갚고 새로운 삶을 살아 보고자 노력하지만 그걸 이해 할 리 없는 가족들, 종남이를 돌봐주는 동서 우미 에게 트집 아닌 트집을 잡고 청년은 야속한 마음에 한미다 건네며 본인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요즘 상황 안 좋은 거 알면서...



Kau tahu aku sedang dalam keadaan **genting** belakangan ini.

Genting 안 좋은 상황 Gawat(위급한) 이나 berbahaya(위험한) 와 유사하게 좋지 않은 상황이나 위험한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 사용 합니다. 위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나타내지만 다음 문장과 같이 문장에 따라 다르게 사용 됩니다.

예)

Itu keadaan **genting** yang harus segera diatasi.

그 (좋지 않은) 위험한 상황은 조속히 처리 해야 한다.

Penyakit dia cukup **gawat**.

병세가 충분히 위급한 상황이다.(그의 병세는 충분히 위급한 상황이다..)

Masuk ke tempat terlarang sangat **berbahaya**.

출입 금지 지역에 들어가는 일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2010년도 부인회 취미활동반 프로그램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보람된 생활을 위하여 2010년도 취미활동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신설된 반들도 있으니 많이 참여하셔서 건강하고 알찬 인도네시아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영교실	일시	강사	기간	장소	연락처
플 롯	월요일 10:00-11:30	유은영	현재 활동중	부인회 사무실	769-2166 0812-924-1860
서 예	목요일 09:00-12:00	손인식	현재 활동중	부인회 사무실	739-7153 0815-936-9114
컴퓨터 (신설반)	토요일 10:30 - 12:00 13:00 - 14:30	전문강사	현재모집중	STC Senayan 4층 네일 갤러리	0812-8802-5799
유화반	금요일 10:00-12:30	전문강사	현재활동중	부인회 사무실	0818-916-566
일어반 (신설반)	토요일 오전/오후	전문강사	현재모집중		부인회
네일아트 (신설반)	화요일 10:30-12:00	강봉주	현재모집중	STC Senayan 4층 네일 갤러리	0856-9192-5376
	목요일 10:30-12:00	강봉주	현재모집중		0811-990-684

부인회 연락처 (신청 및 문의) : 총 무: 박성영 0816-160-5911, 류경희 0817-155-864

쇼핑의 중심 몰, 이젠 예술로 즐긴다.

그랜드인도네시아 몰에 '자카르타 예술 지구' 탄생

〈취재: 김영민 편집위원〉

연중 무더운 인도네시아, 더위를 피해 쇼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몰'Mall이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소도시에도 어김없이 들어서 있는 몰들은 다양한 기능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서 인도네시아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꿨다. 몰은 이제 쇼핑공간, 외식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태의 라이프스타일과 문화를 생산해 내는 대안적 공간으로 탈바꿈 되어 가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인도네시아의 한 유명몰에 타 분야에 뒤늦은 감은 있지만 대중과 함께하는 문화의 창출이라는 기조로 유명 갤러리들이 몰려들었다. 자카르타 곳곳에 산재해 있던 유명 갤러리들이 합심해서 그랜드인도네시아 East Mall LG층에 대거입점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곳을 '자카르타 예술 지구'(Jakarta Art District)로 명하였다.

2년 전 설립된 인도네시아 화랑협회(The Association of Indonesian Galleries:AGSI, 회장 Edwin Rahardjo)가 주축이 되어 16개 회원 갤러리 중 에드윈 갤러리, 몬데코 갤러리, 안디 갤러리, 바네사 아트링크 등 내로라 하는 9개의 갤러리가 동시 입점해 인도네시아 몰에 예술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통일된 형식의 갤러리 현판과 투명 유리벽면을 하고 한 줄로 길게 늘어선 아홉곳의 갤러리들은 유명몰의 입점답게 세련되어 있다. 각 갤러리들은 본점의 브랜치 역할과 상설전시관으로서



항상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갤러리들 앞쪽에 위치한 길다란 모양의 두 전시공간은 매 2주 마다 10일 간의 전시회가 열린다. 각각의 갤러리 들은 이곳에서 공동전시를 개최하기도 하며 때론 한 갤러리의 기획전이 열리기도 한다. 지난 2월 27일 자카르타예술지구 탄생일엔 모든 갤러리가 참여한 전시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그랜드 인도네시아 몰 LG 층에 위치한 Jakarta Art District(자카르타예술지구)의 모습. 지난 2월 27일 인도네시아 화랑협회 중 9개 회원갤러리가 동시에 입점한 이곳은 예술과 대중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화랑협회의 의지가 녹아있다. 각 갤러리들은 상설전시를 하며 매 2주마다 공용 전시관에서 새로운 전시회가 열게 된다.



25년 전 Edwin 회장의 부모가 작은 창고에서 시작해 최근 꼬망으로 자리를 옮겨 확장하고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이하게 된 Edwin 갤러리 관장인 Edwin Rahardjo 화랑협회 회장은 “자카르타예술지구의 탄생은 대중들과 예술을 더욱 가깝게 하기 위한 우리 화랑협회 노력의 산물이며 이제 더 이상 도시에서 길을 헤매지 않고 한 장소에서 인도네시아 현대미술을 이끌어 가고 있는 아홉곳의 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예술지구 설립의 의미를 전했다.

중국 아방가르드(전위예술) 예술가들을 처음 인도네시아에 소개한 Edwin 갤러리는 인도네시아 현대미술의 큰 줄기를 잡았던 초창기 갤러리로서 특히 젊은 청년 작가와 여성 예술가들을 많이 발굴해 낸 곳이기도 하다.

Edwin 갤러리 이전 Mon Décor 갤러리는 이미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Martha Gunawan에 의해 설립된 Mon Décor 갤러리는 인도네시아에 예술을 하나의 인테리어 디자인으로서의 가치로 실증해 낸 첫 갤러리로서 차후 순수예술 부분을 보강하여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정받는 화랑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2002년 Vanessa Sutanto에 의해 설립된 Vanessa Art House는 2007년 인도네시아 갤러리의 한계를 넘어 중국베이징의 Art Space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Vanessa Art Link로 발전했다.

이곳에선 자카르타 외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동부자바 예술가들을 알리기 위해 예술지구 입성한 Puri 갤러리가 있으며 아시안 아트 페어에서 인도네시아 예술가들을 위한 선봉에 서고 있는 말랑 지역 소재의 Langgeng 갤러리 작품을 보는 것도 색다른 맛을 전해줄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근대 예술이 활성화 된지는 오래 되지 않았다. 근대적인 고등 예술 교육을 받을 수 곳이 인도네시아 도처에 몇 군데 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소수의 수집가에 의존하는 예술작품의 판로로서는 예술가의 생계 자체가 불안했던 요인도 있었다.

근대화된 갤러리들의 출현은 채 30년이 되지 않을 만큼 역사는 길지 않지만 예술가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현재 인도네시아 미술은 싱가포르나 홍콩, 유럽의 예술시장에서 점 부각되고 있을 만큼 질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바쁜 일상생활로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주변에 눈을 돌리기가 쉽지 않고 더구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림감상이란 도대체 업무가 나질 않는다.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림 감상이 단지 여가생활이 아닌 현지를 알아나가는 하나의 공부 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좀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자카르타 예술지구(Jakarta Art District)

Grand Indonesia, Lower Ground, East Mall



나를 키워준 아! 반둥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6학년 곽한규

드디어 반둥을 갔다.

삼일절 연휴라서, 식구 중에 엄마와 단둘이 떠나는 여행이었다. 그런데 반둥 가는 것이 참 싫었다. 내 또래 친구들도 없었고 나 혼자만 어리고, 모두 어른들만 계셨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런데 취소는 못 할 것 같았다. 우리학교 선생님이시라 미안할 것 같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웬지 사나이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와 나는 버스에 들어갔는데 뒷좌석만 남아 있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 1박 2일 동안 아주 지겹게 지내야하는구나~.'하고 말이다.

첫 탐방지로 네덜란드 굴, 일본 굴을 가면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책에서 본 '동굴에서 살아남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다. 가는 길도 소나무가 많아 좋았다. 쪽쪽 뻗은 나무끼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같았다. 자카르타와는 다른 바람의 소리가 들리고 바람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같았다. 무기고, 대피소, 감옥으로 사용한 이 굴을 손전등을 들고 들어갔는데 아주 어두워서 더 실감났다. 지옥처럼 캄캄한데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였다. 벽이 무척 매끈해 보였다. 반듯 반듯한 방이 수 십 개가 있었다. 꼭 벽면은 시멘트를 발라 놓은 것 같이 매끄러웠다. 그런데 그 굴은 수천의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파고 뚫었다고 한다. 그 크기로 봐서는 기계로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았고, 힘도 많이 들 것 같았다. 모험심으로 인한 들뜬 마음도 잠깐이었다. 이 굴을 도구로 사용하여 손으로 만들었다니... 네덜란드와 일본 사람들이 잔인하게 느껴졌다. 지난번에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당한 것 같다. 또 내일이 3.1절이 아닌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도네시아로 징용으로 끌려와서 반둥 부근에서도 많이 동원되었다고 하였다. 혹시나 이 굴을 파는데도 강제 동원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굴 입구의 약간 밝은 곳은 벽 쪽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엄마, 배고파...' 라는 한글이 쓰여 있지 않나 싶어서... 어디선가 신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수나르노갤러리에서 멋진 그림을 보았다.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갤러리였다. 마침 비도 와서 어른들은 갤러리 카페에서 낭만을 즐기며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도 어른들이 말하는 낭만이 뭔지 느껴보았다. 지금 들리는 빗소리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다음은 앙끌롱 연주장에 갔다. 이곳은 여러 번 와 본 곳이다. 그런데 이렇게 여럿이 오니까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았다. 앙끌롱 화음도 더 웅장하게 들렸다. 인도네시아 전통 식사를 하고 호텔로 왔다. 호텔방은 좋았지만



약간 허전하면서 집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왜 그럴까. 아버지가 안 계셔서이다. 오늘 탐방 한 것 중에서 궁금한 것을 물으면 아버지는 다 아실 텐데. 아버지를 생각하다가 엄마 옆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날 바텍 공장에 갔다. 학교에서 바텍 공장에 한번 다녀와서 새롭지는 않았지만 이곳은 무척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옛날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여 뜨거운 납을 다루는 아저씨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째(Cap)을 만드는 것도 신기했다.

지학 박물관에서 공룡도 보고 구석기시대에 살았던 자바 원인도 만났다. 우리나라 조상도 자바 원인 보다는 역사가 늦지만 같은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영화도 관람했는데 반둥은 여러 번의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땅이고 예전에는 반둥 전체가 호수였다고 한다. 반둥

전체가 호수였다니... 영화를 보는 동안 아득한 시간을 생각하면서 나는 시인이 된 것 같았다. 서부 자바의 시청 거동 사떼(Gedung Sate)도 갔다. 큰 건물이었고 단단해 보였다. TV에서 본 유럽스타일의 건물이었다. 반둥에는 1920년대에 유행했던 건축 양식으로 많은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그날따라 경찰들이 많이 있었다. 반둥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다. 그런데도 우리들을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 주었다. 가파르고 둥글게 휘어진 계단을 한참 올라가니 잘 꾸며진 전망대가 나왔다. 아~조금 힘들다. 지금은 전시도 하는 공간이지만 예전에는 이곳에서 회담도 했다고 한다.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본 반둥은 깨끗해 보였고 시가지가 정돈되어 있었다. 영웅 묘지도 보이고 산으로 둘러싸인 반둥이 한눈에 들어왔다. 다음은 우리는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오래된 네덜란드 풍으로 아주 멋진 레스토랑이었다. 유럽에 여행 온 것 같았다. 그리고 같이 간 미경이 이모가 과자도 사주셨다. 미경이 이모가 있어서 참 좋았다.

이번에 우리는 1955년에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열렸던 박물관에 갔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들어가지 못 했다. 우리 다시는 식민 지배를 당하지 말자는 것이 회의의 주요 내용이었지만, 한국처럼 이념에 희생되지 말자는 회의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참석도 못했다고 한다.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했더니 참 기쁘고 자부심이 느껴졌다. 박물관을 탐방 못한 것은 아쉽지만, 마지막에 엄마가 옷 한 벌 사주셔서 기분이 좋아졌다.

엄마가 다른 곳으로 탐방을 가자한다면 나는 기꺼이 따라 나설 것이다. 아는 만큼 느끼고 사는 거니까..... 이틀간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것을 많이 알아버린 것 같아 괜스레 설레고 많이 자란 것 같다. 사공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179~181회 한인회인니문화연구회탐방

일시: 4월 20일 (화) -22일(목)

집결: 수까르노-하타 공항 국내선 1A 오후 1시

탐방지: 족자(쁘람바나사원 / 보르부드르 사원 / 이모거리 / 따만사리 / 왕궁 식사 / 아판디박물관 / 왕궁바틱 박물관 / 빠랑드리피스 해변 외)

연락처: 신유희 0818-708-228 / plentyhoki@yahoo.co.kr
사공경 0816-190-9976 / sagong@hotmail.com



개탄스런 북한의 인권 상황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북한 인권상황이 개탄(deplorable)스럽다. 이 표현은 한국 보수단체의 성명서 내용이 아니라 지난 3.12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2009년 연례 인권보고서’ 북한편의 한 부분이다. 美 국무부는 매년 전 세계 국가의 인권상황을 평가한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94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미얀마, 수단 등과 함께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 국무부는 북한인권 상황을 지난해 열악(poor)하다고 표현했으나, 금년에는 개탄(deplorable)스럽다는 표현으로 비난 수준을 더 높였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과거보다 더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박해, 강제낙태, 영아살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과 실종, 자의적 구금, 정치범 체포와 각종 고문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 사법당국과 수사기관은 “폭행과 전기쇼크, 공개장소에서의 옷벗기기, ‘형벌방 격리’ 등의 다양한 고문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은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주민들의

삶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절대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김정일 독재체제’라고 혹평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 연례보고서는 북한의 심각한 부정 부패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해있고, 정부 관리와 군인들이 주민들의 식량을 착복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정부기관은 뇌물에 의하여 움직여진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부정 부패 문제는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인권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향후 더욱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미국무부 포스너 차관보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그런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곤경을 계속 염두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향후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의 일차적 책임은 북한당국에 있으나,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도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좌시할

수만은 없다.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기에 그 성과가 기대된다.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경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개선 노력은 가시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미국, EU, UN, 그리고 국제적 인권단체들과 연대를 강화하여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 상황은 미 국무부 보고서에 나타나듯이 그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는 하루 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유기적인 연대 활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한국정부와 북한인권단체는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국제인권레짐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상정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UN과 국제 사회의



윤여상 소장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및 석사/박사학위 취득하고 2004년 설립된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초대 소장으로 취임한 후 북한인권 관련 자료 및 증언록, 문헌 등을 수집해 센터 자체 북한인권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인권백서 및 리포트 발간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름으로 북한당국에 인권개선을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미 국무부가 아닌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보고서’를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첫해가 금년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은 정부의 ‘북한인권 보고서’ 작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망한 소망은 아닐 것이다.



교민 여론 광장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가정에, 회사에, 친구에게 ... 한인사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가정과, 회사와, 친구와 ... 한인사회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

평소 머리속을 맴돌며 궁금했던 질문들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한인뉴스에서 '교민여론광장'의 문을 엽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한이뉴스 지면을 통해 나가게 됩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실 곳 :

한인뉴스 편집부 이메일 : haninnews123@gmail.com

문의 : 김영민 편집위원(hp: 0818 916 566)

- * 의견을 보내주실 때는 성함과 연락처(핸드폰)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보내주시는 분의 요청이 있을 시 익명으로 게재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근거없는 비방글이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에서 계속)

11. 건축권(Hak Guna Bangunan)

토지 위에 건물 혹은 구조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건축권이라고 한다. 공장, 창고, 사무실 빌딩, 주택, 아파트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대부분 이 건축권이다.

11.1. 건축권 보유 가능성

건축권은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와 인도네시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인도네시아영토 내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에게만 보유를 허용한다. 따라서 외국회사의 지사, 외국 정부의 대표 기관인 대사관, 총영사관, 외국인, 인도네시아 사업자일지라도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Joint Operation에게는 건축권 보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법인자격을 획득한 주식회사, 재단 혹은 조합에게 건축권 보유를 허용한다. 외국인이 지분의 100% 혹은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외자투자회사에게도 법인자격을 획득하면 건축권 보유를 허용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적을 상실하거나 법인자격을 상실하면 1(일)년 이내에 건축권을 유자격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1(일)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으면 건축권이 실효하며 토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현실적으로 재단법 발효 이후 정관을 새 재단법에 따라 개정하지 않은 재단 및 새 주식회사법 발효 이후 새 주식회사법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 법인 자격을 상실한 재단 혹은 주식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있으며 건축권의 보유자인 법인이 법인자격을 상실해버려서 건축권 자체가 법리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동산들이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 매매는 법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매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2. 국가 소유 토지, 개발권 토지 혹은 소유권 토지에 건축권을 줄 수 있다. 소유권 토지에 대한 건축권 부여는 반드시 토지문서 작성관(Pejabat Pembuat Akta Tanah)에 의해 토지 소유자와 건축권 신청자 간에 작성된 약정서에 근거하여 중앙 토지원장이 부여하며 건축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11.3. 건축권 유효 기간

건축권은 최초 최장 30(삼십)년을 주며 30년이 지나면 20(이십)년 연장이 가능하고 20년이 지나면 다시 30(삼십)년 갱신이 가능하다. 투자 목적 건축권인 경우에는 최초 30년, 연장 20년, 갱신 30년 토탈 80(팔십)년을 일시에 줄 수 있다.

11.4. 건축권 연장 혹은 갱신 조건

11.4.1. 건축권 연장 혹은 갱신 신청을 한 토지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건축권 보유자의 법적 신분이 인도네시아의 국민 혹은 법인이어야 하고 대상 토지가 국토 이용 계획서 상으로 건축권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부여에 문제가 없는 토지이어야 한다.

11.4.2. 연장 혹은 갱신 신청은 늦어도 건축권 만기 2(이)년 전에 신청해야 한다.

11.5. 건축권 보유자의 의무

11.5.1. 법정 공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식 경비는 건축권 취득세는 5%이며 다른 공과금이 더 있다.

11.5.2. 토지 건축권을 부여하는 정부의 결정서에 있는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토지 및 건축물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며 환경 훼손이 없게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11.5.3. 건축권이 실효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환해야 하며 등기권리증서원본도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11.6. 건축권 토지에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 즉 담보물로 제공이 가능하다.

11.7. 건축권 토지를 매매, 교환, 출자, 증여 및 상속으로 권리 양도가 가능하다.

11.8. 건축권 토지에 대한 매매는 반드시 토지문서 작성관 (PPAT)이 작성한 매매증서로 해야 한다.

11.9. 건축권 실효

건축권 등기 권리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권 만기일이 되면 건축권은 실효한다. 따라서 건축권 토지 (부동산)을 매입 시에는 등기 권리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만기일에 유념해야 한다. 건축권 보유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서 건축권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권은 실효하며, 건축권 보유자가 만기일 전에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도 건축권이 실효하며, 공익을 위해 국가에서 수용하는 경우에도 실효하며, 건축권 보유자가 인도네시아 국적을 상실하고 1(일)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효하며, 건축권 보유 법인이 법인자격을 상실한지 1(일) 이내에 건축권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권은 실효한다.

12. 사용권(Hak Pakai)

사용권은 국가 혹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로부터 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이다.

12.1. 사용권 보유가 가능한 자는 다음과 같다.

12.1.1.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

12.1.2. 인도네시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인도네시아영토 내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12.1.3. 정부 각 부처, 기관 및 지방자치 정부

12.1.4. 종교 및 사회단체

12.1.5.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기한부 거주허가서 이상 보유자)

12.1.6. 인도네시아에 법적인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의 지사(*상사의 지사)

12.1.7. 외국정부 혹은 국제기구의 대표부(*대사관, 총영사관, UN 대표부, UNICEF 대표부, EU 대표부, ASEAN 대표부 등)

12.2. 사용권 보유자의 법적 신분이 상기 “12.1 항”에서 규정한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1(일)년 이내에 유자격자에게 토지권을 양도해야 하며, 1(일)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실효한다.

12.3. 사용권은 국가 소유 토지, 개발권 토지 및 소유권 토지에 부여할 수 있다.

국가 소유 토지 혹은 개발권 토지에 사용권 부여 여부 결정권은 중앙 토지원장에게 있으며 타인 소유 소유권 토지에 사용권 부여는 반드시 토지문서 작성관이 토지 소유권 보유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한 사용권 제공 문서에 의해야 하며 사용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12.4. 사용권 유효 기간

12.4.1. 국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최초 최장 25(이십오)년을 주며 25년이 지나면 최장 20(이십)년 연장이 가능하며 다시 최장 25(이십오)년 갱신이 가능하다. 토지를 정부 각 부처, 기관, 종교 및 사회단체 혹은 외국정부 혹은 국제기구의 대표부(*대사관, 총영사관, UN 대표부, UNICEF 대표부, EU 대표부, ASEAN 대표부 등)가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연장이 가능하다.

12.4.2.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권 연장 조건은 토지가 사용권 부여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사용권 부여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사용권 보유자가 상술한 “12.1.항”의 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늦어도 만기 2(이)년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12.4.3. 투자 목적 사용권인 경우에는 최초 25년, 연장 20년, 갱신 25년 토탈 70(칠십)년을 일시에 줄 수 있다.

12.4.4.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권 유효 기간은 최장 25(이십오)년을 허용하나 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만기가 되면 토지문서 작성관이 소유권 보유자와 사용권자 간에 체결한 토지 문서에 근거하여 신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용권을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12.5. 사용권 보유자의 의무

12.5.1. 법정 공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식 경비는 사용권 취득세는 5%이며 다른 공과금이 더 있다.

12.5.2.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는 정부의 결정서에 있는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토지 및 건축물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며 환경 훼손이 없게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12.5.3. 사용권이 실효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환해야 하며 등기권리증서원본도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12.6. 사용권 토지에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 즉 담보물로 제공이 가능하다.

12.7. 사용권 토지를 매매, 교환, 출자, 증여 및 상속으로

권리 양도가 가능하다.

12.8. 사용권 토지에 대한 매매는 반드시 토지문서 작성관(PPAT)이 작성한 매매증서로 해야 한다.

12.9. 사용권 실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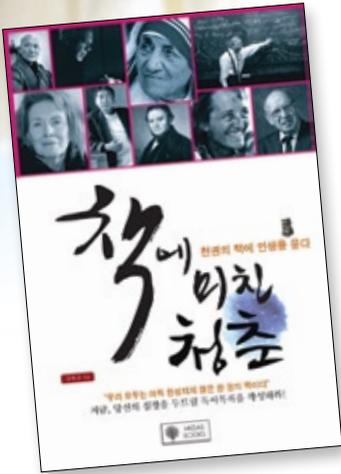
12.9.1. 사용권 등기 권리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권 만기일이 되면 사용권은 실효한다. 따라서 사용권 토지(부동산)을 매입 시에는 등기 권리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만기일에 유념해야 한다.

12.9.2. 사용권 보유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서 사용권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권은 실효하며, 사용권 보유자가 만기일 전에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도 사용권이 실효하며, 공익을 위해 국가에서 수용하는 경우에도 실효하며, 사용권 보유자가 인도네시아 국적을 상실하고 1(일)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효하며, 사용권 보유 법인이 법인자격을 상실한지 1(일) 이내에 사용권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권은 실효하며 해당 토지가 천재지변으로 유실되는 경우에도 실효한다.

12.10.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 보유자가 사용권을 연장 혹은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사용권 보유자는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혹은 건축물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완전히 철거하여 빈 토지 상태로 사용권 실효일로부터 1(일)년 이내에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전 사용권 보유자가 건축물 혹은 건물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철거하고 그 철거 비용은 전 사용권 보유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국가에서 건축물 혹은 건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 사용권 보유자에게 건축물 혹은 건물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12.11. 개인 소유 토지 혹은 개발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실효하는 경우에는 전 사용권 보유자는 해당 토지를 소유권 혹은 개발권 보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상요권 설정 시 약정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책에 미친 청춘

저자 김애리 | 출판사 미다스북스

책에서 청춘의 해답을 구하고, 인생에 대해 묻다!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넓고 깊은 책의 세계를 안내하는 『책에 미친 청춘』. ‘책에 미친 청춘’을 보내고 있는 저자가 그동안 읽은 책들의 정수를 모은 책이다. 10년 동안 경제, 경영, 문학, 철학, 역사, 종교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천여 권의 책을 읽어온 저자는 인생의 모든 길에서 답을 물을 수 있는 친구를 발견했다고 말한다. 천여 권의 책들 중에서 각 대학 및 기관의 추천도서,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 널리 회자되는 고전, 대한민국 청춘들이 고민하는 테마에 적합한 주제를 가진 도서목록을 뽑아 그 공통분모를 찾아냈다. 고정된 시각이나 취향을 거부하는 200여 권의 책들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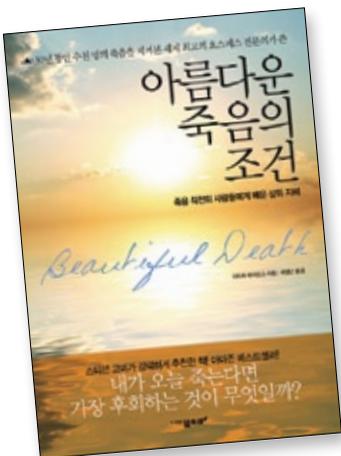


통장의 고백 - 당신만 모르는 금융회사의 은밀한 진실

저자 심영철 | 출판사 더난출판사

더 이상 당신의 통장을 믿지 마라!

늦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금융 회사의 비밀 『통장의 고백』. 5년 전 ‘부자가 되려면 은행을 떠나라’고 외쳤던 저자이자 재테크 전문의 심영철이 이번 책에서 아주 솔직한 통장의 고백을 들려준다. 저자는 더 이상 금융회사의 이해관계와 상품 판매를 위한 선정적인 광고와 마케팅 전략에 속아 더 이상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은행, 증권, 펀드 등 대표적인 재테크 종목들의 장단점을 꼼꼼하게 파헤치고, 더 이상 금융회사를 믿지 말고, 금융지식을 쌓으라는 등 수익을 가져다주는 알찬 재테크 정보를 제공한다. 든든한 미래를 보장하는 7가지 재무설계 법칙을 함께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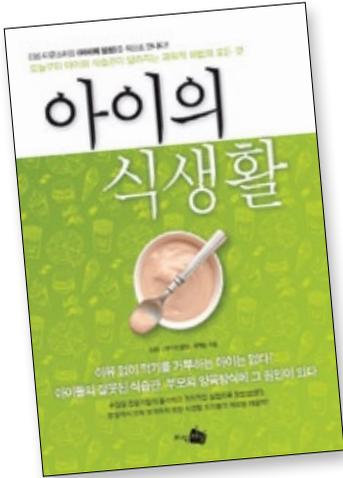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 - 죽음 직전에 사람들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

저자 아이라 바이오 | 역자 곽명단 | 출판사 물푸레

단 한번 뿐이 특별한 ‘죽음’의 순간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자세!

30년 동안 수천 명의 죽음을 지켜본 세계적인 호스피스 전문가가 전하는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 오늘 죽는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호스피스 전문의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바라봐 온 저자는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깨달은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다. 뜻밖에 죽음을 당하거나 갑자기 병마가 덮칠 수도 있는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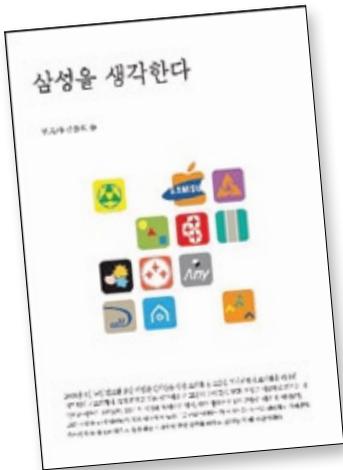


아이의 식생활

저자 EBS 아이의 밥상 제작팀 | 출판사 지식채널

아이들과의 밥상 전쟁을 위한 과학적 해법!

수많은 부모들은 오늘도 아이들과 밥상머리 전쟁을 벌인다. 한쪽에서는 밥을 먹지 않아 문제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밥을 너무 많이 먹어 문제이다. 『아이의 식생활』은 이런 아이의 편식과 과식을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조명해 호평을 받은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밥상>의 콘텐츠와 수십 개의 연구결과를 분석해서 담은 책이다. 아이들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4개의 챕터로 구성했다. 또한 방송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소아청소년과 교수, 아동심리학자, 임상영양사, 한의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삼성을 생각한다

저자 김용철 | 출판사 사회평론

이제 삼성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

변호사 김용철이 들려주는 삼성 이야기 『삼성을 생각한다』. 2007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 비리’ 고발의 주인공인 변호사 김용철이 펴낸 책이다. 여기에 담긴 내용의 일부는 양심고백 당시에 공개한 것들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을 저자가 삼성에서 7년간 일하면서 보고 겪은 이야기들로 채웠다. 삼성에 입사하기 전에 가졌던 글로벌 기업에 대한 환상이 모두 깨졌다고 말하는 저자는 삼성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를 목격했다고 한다. 또한 그를 괴롭게 한 것은 삼성이 비리를 저지른다는 점이 아니라, 그러한 비리가 삼성 존재의 한 근거라는 점이었다고 말한다.



숨그네

저자 헤르타 밀러 | 역자 박경희 | 출판사 문학동네

2009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헤르타 밀러의 최신작!

인간의 숨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그네처럼 가볍게 흔들리는 것을 상징하는 작품 『숨그네』. 이 소설은 철저히 비인간화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 삶의 한 현장을 섬뜩하면서도 아름답게 포착해낸다. 루마니아 독재 치하에서 비밀경찰에의 협조를 거부하며 독일로 망명한 헤르타 밀러는 자신처럼 망명한 시인이자 실제 수용소 생존자인 오스카 파스티오르의 구술을 토대로 작품을 썼다. 이차대전 후 루마니아에서 소련 강제수용소로 이송된 열일곱 살 독일 소년의 삶을 충격적이고 강렬한 시적 언어로 밀도 있고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을 만나보자.



베스트 셀러

10여 년간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군림해온 백희수. 발표한 신작 소설이 한 공모전의 심사위원 당시 심사를 맡았던 작품을 표절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희수는, 하루 아침에 사회적 명성을 잃고, 결혼생활마저 순탄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2년 동안 창작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던 희수는 오랜 친구인 출판사 편집장의 권유로 화려한 재기를 꿈꾸며 딸 연희와 함께 시골의 외딴 별장으로 내려간다.



그들이 찾아간 별장. 그 곳은 굳게 잠겨 있는 2층의 구석방, 간헐적으로 집안 전체를 울리는 기괴한 진공소리, 작업실 천정에 점차 번져가는 검은 곰팡이 등 왠지 모를 섬뜩한 분위기를 풍기고 연희는 “언니”라고 불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 창작에 목말라 있던 희수는 점차 연희가 들려주는 별장에서 벌어졌던 섬뜩한 이야기에 집착하고, 결국 그 이야기를 소설로 완성시킨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베스트셀러 작가로 우뚝 서며 재기에 성공한다.

하지만 그 이야기조차 이미 10년 전 발표된 소설과 똑같은 내용임이 밝혀지게 되면서 그녀는 또 한번 표절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절대 표절일리 없다고 주장하는 희수는 별장에 있는 무언가가 자신에게 똑같은 글을 쓰게 했다고 믿고 표절혐의를 벗기 위해 다시 마을로 내려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소설과 별장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사건과 마주치게 되는데... 이제 그녀는 감춰진 진실을 쫓아 필사적인 추적을 시작한다!

프로포즈 데이

연애 4년차 기념일, 애나(에이미 아담스)는 남자친구의 달콤한 프로포즈를 예상하지만 남자친구는 눈치 없이 반지 대신 귀걸이 선물만을 남기고 훌쩍 아일랜드로 출장을 떠나버린다. 속이 터지는 애나는 마침 아일랜드에서 4년에 단 한번 찾아오는 2월 29일,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면 무조건 승락해야만 하는 풍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작정 프로포즈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악천후로 여행은 꼬이기 시작하고, 2월 29일에 맞춰서 남자 친구가 있는 더블린에 꼭 도착해야만 하는 애나는 아일랜드 토박이 까칠남 데클랜(매튜 구드)에게 안내를 부탁한다. 한시가 급한 애나와 달리 느긋하고 무뚝뚝한 데클랜 때문에 둘은 시종일관 티격태격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두사람이 부딪히며 일으키던 스파크는 어느새 미묘하고 아련한 감정들을 불러오는데... 마침내 남자 친구 앞에 선 프로포즈의 순간. 애나가 이토록 쉽게 찾아온 운명의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과	520 895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동 한인회	022 200 6880
발리 한인회	0361 286 248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메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탐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빨렘방 한인회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28078607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하나 은행	522 0120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 있는 교회	548 3044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420 9134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29 0211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가구**

쥬지언 퍼니처	750 6109,766 0364
---------	-------------------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8779 8959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 황성주 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 꽃집	0816 733 810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 렌트카	6870 9335

자신을 허물고 부활을 꿈꾸는 이에게-

여행은 혁명이다

소장/정연승

tel.021.521.2212
hp.081.888.5353
email.yunisarah@lycos.co.kr

마타하리여행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 변호사 이소왕 배상 -

DOOWANG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021-7278-0704 Fax: 021-7278-8330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4587 8833 Fax: 4586 5645
HP: 0812 967 8131
Email: rodem_tours@cbn.net.id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있는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고객 만족을 위해 언제나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퓨릭 컨설팅 Since 2001
BUSINESS INVESTMENT & MANAGEMENT

- 회계 자문, 회계 감사, 세무 자문
- 투자, 창업 지원 서비스
- 각종 인허가 대형 서비스

Tel. (021) 5596 3213 / 5595 4666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 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 723 5638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Kris Kim 7279 1555
Hair Perm 7280 1404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 한의원 722 7745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동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리)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골라빠가딩) 2850 7600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321 992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 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 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 EX몰 315 1033
뽕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 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산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씨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 447	414
소양강(찌까랑)	897	2231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 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이스타나 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타(골라빠가딩)	4585	4302
중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리안 하우스(씨부부르)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동) (022)203	1626	
코리안하우스 Hits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6230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씨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 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타임 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 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신메뉴

L.A 갈비 Rp. 125.000 (1인분 200g)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사무실 인테리어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사무실은
로만인테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OFFICE INTERIOR 전문업체

로만인테리어

HP. 0811-847-699
Tel: (021) 720-4851 Fax: (021) 726-0910
Jl. Laksana II No. 13, Blok S, Kebayoran Baru

아이니 갤러리 ini gallery



Telp. 021-5814690
021-98202086
0812 19285578
0817 113578

가구 furniture
Neo classic Antique, European style, Baroque, Modern & Minimalist, Italian style, gold & white.

interior 인테리어
Home, Office, Apartment, Commercial, Villa, Remodeling, Exhibition.



인도네시아가 보이는
리·얼·타·임·뉴·스

데일리코리아는 유료정보입니다.

본구독의
Tel 021-725-7447
HP 0813-1898-9897
dailykoreaindonesia@gmail.com



Senayan · 723 0807
Tangerang · 558 7227
Kelapa Gading · 471 8047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5 1628

5296-0024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동서 KOLIBINDO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 증권 797 6210
클레몽 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린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 **하숙집**

쉼터 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앤리 725 5008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 논술 3342 7540
뽀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 아트스쿨(리쁘찌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725 575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 **환전**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골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두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3 0172
환전 712 8556

● **골프샵**

교민 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 골프샵	546	0838
레네 세계골프	739	8312
삼호(구농뿌뜨리)	8686	0624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 플레이골프	344	2540
MFS 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 골프	570	3063
배준원 골프교실	781	7679

●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마음수련	722	1600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발리 (지역번호 0361)

● **여행사**

PESONA TAMAN KENCANA	744	1525
PD 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288	999
APA TOUR	241	341
TNB	773	5801
KORUS	744	7200
MARIN TOUR	224	010
VIP TOUR	762	090
SUDINA BALI	744	2121
MATAHARI KORIN	757	474
CAKRAWALA TOUR	727	242
B.J.C TOUR	284	365
M TOUR	725	800
SATYA TOUR	283	305
RED CAP	754	4418
스피릿투어	234	825
Varia Tour	860	4977
Korea Travel	756	899
대한항공지점	244	988

● **식당**

A One Seoul Garden	768	323
hanil rest	727	250
Seoul Garden	(0362)	292 20
청기와	287	503
꼬끼레스토랑	287	503
발리인터네셔널 라운지	759	368
Ajengan Korean FOOD	263	793
Grill House Restaurant	752	755

BUGA RESTAURANT 286 909

● **서비스업**

- **마사지**

아이시스마사지	287	503
INKO MASSAGE	789	2000
MASSO MASSAGE	725	475

- **빌라,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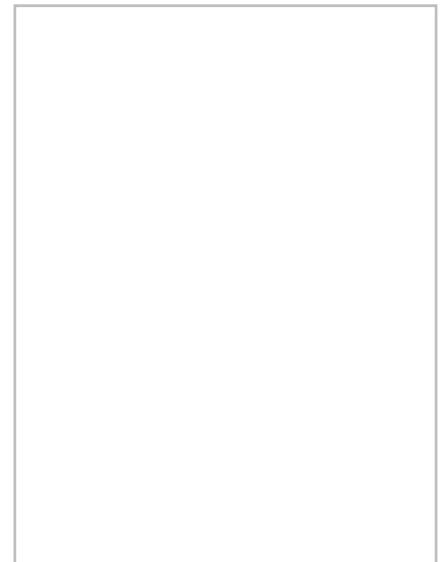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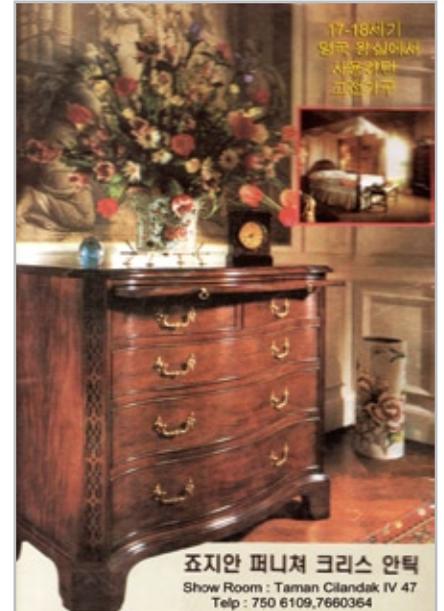
드림랜드빌라	708	199
라벤더 호텔 앤 스파	752	961
BEVERLY HILLS	789	2000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Arirang Hotel	(0363)	417 95

- **기타 서비스업**

INT	720	999
HAN STAR	729	099
BALI ZIGI.COM	745	4229
시나르무띠아라(진주)	462	061
선주얼리진주가게	761	539
발리데와따	285	501
CLEAN/GREEN	289	070
환타지가라오케	282	828
뜨게아궁	298	643
공항(폴로)	759	368
BALI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익투스	815	310
Bali Cable Com	705	266
B.T.I	284	362
DEDO RAYA UTAMA	720	452
G.B.I 발룬기구	704	333
LAPAMA 레프팅	288	507

반둥 (지역번호 022)

명가 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 하우스	203	1626
한국관	7081	9529
한국가든	203	3473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haninnews123@gmail.com

4월 공지 사항

해외진출 우리기업 대상 신종 전화사기 주의 당부

- 최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뇌물을 요구하는 신종 전화사기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사기조직들은 자국 진출 외국업체들을 표적으로 투자청 등으로부터 업종, 임원성명 등 구체적인 회사 관련자료를 입수한 후
 - 자신을 주지사 비서실장 등으로 소개한 후 주지사가 은밀히 통화하고 싶어한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통화를 시도하면
 - ‘개인적으로 긴급히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도움을 준다면 회사업무에 도움을 주겠다’ 등 갖가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계좌번호를 통보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기업 대상 전화사기는 현지 우리기업 진출 증가에 편승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뇌물 성격의 금전을 요구 받을 때는 일단 전화사기로 의심하시고 우리 공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한인문화회관 1층 상담실

Jl. Jend.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상담방법: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M&A, 부동산, 저작권, 자원개발, 채권회수, 파산관재인,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소송, 중재, 재단법인, 출입국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이승민 변호사, 변리사, 파산관재인(한인회 자문변호사)
MP. 0816-1911245 / Tel. 021) 529-60643
yisngmin@centrin.net.id

대사관,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서비스센터를 설치 하였습니다.

○ 자문 내용:

- 인도네시아의 투자관련 법령,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등 기업 영업 관련 법률 문제

2. 상기 센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관 김호일 조사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1)520-1915 / 핸드폰: 0811-183-3164

E-mail: jkt_kimhoil@msn.com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 인도네시아어 강좌 >

강의시간: 매주 화/금요일, 10:00~12:00

강의실: 한인회 2층

지도강사: 안선근 교수

연락처: 521-2515 / 0816-1883-224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을 관람.

탐방리더: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사공경 (0816 190 9976),

신유희 (0818-708-228)

< 월화차회 >

모임 일정: 매주 화/목요일, 10:00

강의실: 한인회 강당 1층

연락처: 720-4211, 0818-491-325

< 한국어 강좌 >

강좌시간: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한인회 2층

연락처: 521-2515 / 0815-1177-1899

4월 공지 사항

대한항공 서울행 추가운항 안내

2010. 2. 9일 부터 대한항공에서 서울행 추가편(가루다 항공기 이용)을 운항합니다. Garuda Indonesia 와 공동 운항하는 추가편으로, Garuda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대한항공의 예약/발권 서비스는 그대로 받으실 수 있어 더욱 편리한 스케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항공을 통해 Garuda 항공 운항편을 예약한 고객분께서는 공항의 Garuda 항공 카운터에서 수속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 정기 운항편 (대한항공 운항)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기종	출발		도착	
KE 628	매일	09.10.25	2010.3.27	772	자카르타	21:55	서울	06:45*1
KE 627	매일	09.10.25	2010.3.27	772	서울	15:25	자카르타	20:30

추가 운항편 (Garuda Indonesia 항공 운항)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기종	출발		도착	
KE 5628	화 금,일	2010.2.8	2010.3.27	332	자카르타	23:25	서울	08:30*1
KE 5627	월 수,토	2010.2.8	2010.3.27	332	서울	10:35	자카르타	15:30

대한항공 하계운항 안내

2010. 3. 28일 부터 변경되는 대한항공 서울행 항공편 스케줄 안내입니다. Garuda Indonesia 와의 공동 운항편도 대한항공의 예약/발권 서비스는 그대로 받으시면서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카르타 - 서울]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기종	출발		도착	
KE628	매일	2010.3.28~2010.10.3	777	자카르타	22:05	서울	07:05*1
KE627	매일	2010.3.28~2010.10.3	777	서울	15:45	자카르타	20:35

※ Garuda 항공기 이용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기종	출발		도착	
KE5628	화수금토일	2010.3.28~2010.10.3	332	자카르타	22:25	서울	08:30*1
KE5627	월수목토일	2010.3.29~2010.10.3	332	서울	10:35	자카르타	15:25

[덴파사르 - 서울]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기종	출발		도착	
KE630	일	2010.3.28~2010.3.28	A333	덴파사르	01:25	서울	09:20
	월,일	2010.3.29~2010.10.25	A333	덴파사르	02:20	서울	10:25
	화수목금토	2010.3.30~2010.10.30	A333	덴파사르	01:20	서울	09:25
KE629	토,일	2010.3.28~2010.10.30	A333	서울	19:05	덴파사르	01:05*1
	월화수목금	2010.3.29~2010.10.29	A333	서울	18:05	덴파사르	00:05*1

※ Garuda 항공기 이용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기종	출발		도착	
KE5628	화,금,일	2010.3.30~2010.10.29	333	덴파사르	00:30	서울	08:30
KE5627	화,금,일	2010.3.30~2010.10.29	333	서울	10:35	덴파사르	16:20

대한항공 사원모집

다음과 같이 대한항공 자카르타지점에서 근무할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1. 원서접수 : 2010. 4. 1 ~ 종료시까지
2. 모집분야 : 여객운송 (공항근무)
3. 자격조건
 - 자카르타 지역 거주자
 - 2년제 대졸이상
 - 한국어 가능자
4. 지원방법 (하기 방법 중 택1)
 - 채용사이트, www.jobstreet.com 접속, 온라인 지원
 - 지원서 email 송부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E mail : wsari@koreanair.com
splestari@koreanair.com
5. 채용일정 : 개별통보
6. 기타문의 : 021-521-2177, 2173
(Ms.Sapti 또는 Ms.Sari)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18년간의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드리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정품 진주 전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매달가능)
- 최상품 다이아(GIA)판매 - 90% 환매 보장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점(수출/무역)

Tel. 021-725-8857
HP. 0816-873-176 / 0816-1390-333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사 등 100여社로 송달되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자바 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언제든지 한인뉴스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인미술협회 신입회원 모집

재인도네시아 한인미술협회(회장 인치혁)이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교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기간 : 수시

회원자격 : 미술 전공자 또는 전시 경력자

연락처 : 김영민 (0818-916-566)

김수영 (0858-8543-6348)

재인도네시아아 한인미술협회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